

碩士學位論文

# 文學教科에서의 敍事巫歌 指導 研究

-濟州敍事巫歌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 五 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玄 元 弼

1999年 8月

# 文學教科에서의 敍事巫歌 指導 研究

- 濟州敍事巫歌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玄 元 弼

玄元弼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연구  
-제주서사무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현원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오 규

이 연구는 문학교과에서의 무가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현행 학교교육의 무가 지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지도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전제로, 제주서사무가인 <이공본풀이>를 선택하였다. <이공본풀이>는 서사무가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한국 서사문학의 원형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현대 여러 서사문학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구연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이본으로 나뉜다. 이는 청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시간과 공간은 비일상적 시간과 공간이다. 이는 청자들의 의식을 원초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이끌어 들인다. <이공본풀이>의 사건과 동기들을 연결하여 다시 본풀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풀이 구연동기가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핵심적 요소는 죽음이다. 이는 청자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주고 삶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본받음’의 논리이다. 이는 타계를 모범으로 삼아 타계의 질서가 그대로 현실의 삶의 세계에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의식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공’이 신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죽음을 체험했다는 사실과 그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굿의 의뢰자나 동참자들이 공유하는 의식이다. 타계를 설정한 것은 신의 세계를 전범으로 삼으려는 의도인데 이는 인간의 세계에 질서화와 조직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의 세계보다는 현실의 세계를 중심으로 삼으려는 사고다. <이공본풀이>는 현실 세계의 인간들을 위하여 구연되며,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망설임을 없애주기 위해 삶과 죽음이 동시에 불러진다.

학교 현장에서 무가를 지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첫째, 원형심상적 측면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려는 심상과 관련시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공본풀이>의 꽃이 지니는 원형적 심상은 후대 문학의 여러 작품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사문학적 측면에서는 서사적 원형성과 관련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무가는 목적성, 기능과 관련하여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기능을 배제한 무가는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의식과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여 무가를 지도해야 한다. 본풀이는 당대의 인간들이 세계와 환경에 대해 지니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 중심의 사고, 현실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 대상에 대한 미적 가치와 관련하여 무가를 지도해야 한다.

넷째는 국문학과와 통시적 측면과 관련하여 무가를 지도해야 한다. 구비문학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무가와 서사문학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무가의 소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들도 무가에 나타난 사고와 관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무가 지도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토대로 한국 서사문학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이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 目 次

### <국문초록>

I. 序 論 .....	1
1. 研究 目的 .....	1
2. 先行研究 檢討 .....	3
3. 研究資料와 方法 .....	5
II. 敍事巫歌의 敎科指導 概觀 .....	9
1. 題材設定 .....	9
2. 概念과 認識 .....	11
3. 學習內容 .....	13
III. <이공본풀이>의 文學的 位相 .....	16
1. 異本과 類型 .....	17
2. 곳과 聽者 .....	21
3. 敍事와 背景 .....	26
4. 構造와 祭儀 .....	37
IV.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文學意識 .....	45
1. 本받음의 論理 .....	45
2. 體驗과 克服으로서의 神 .....	49
3. 他界設定을 통한  현실 重視 .....	52
4. 삶과 죽음의 超越 .....	54
V. 敍事巫歌 指導 方向 .....	58
1. 原型心象의 측면 .....	61
2. 敍事文學의 측면 .....	65
3. 文化意識과 環境的 측면 .....	69
4. 國文學史와 通時的 측면 .....	75
VI. 結 論 .....	79
< 參考文獻 > .....	82
<Abstract> .....	86

# I. 序 論

## 1. 研究 目的

제주의 敍事巫歌는 口碑文學 중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놓인다. 제주의 敍事巫歌에서 구연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본풀이라 한다.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神의 근본 來歷을 풀이하는 것이다. 본풀이는 神에 관한 ‘풀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이 다양하게 투영된 ‘문학’이다. 현실이라는 삶의 여건 속에서 인간들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이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 또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소연을 포함한 神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겪는 삶의 내용과 인식과 가치, 소박한 이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濟州 敍事巫歌는 우리 민족의 삶을 담은 文學이다. 그 속에는 인물이 존재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 이야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의미를 형성해 낸다. 그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알게 모르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가치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일이고 그 가치의 문제는 궁극에 가서는 인간의 삶의 기준, 방향, 의미, 이상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敍事巫歌는 민중의 신앙·관습·생활·사상·의식구조·가치관을 반영하며, 한 민족이 지닌 문학적 창조력의 바탕으로서, 여러 형태의 기록 문학을 산출하는 데 근간이 되는 민족문학이다.

<이공본풀이>는 현재 왕성하게 구연되고 있는 생명력을 지닌 문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원형적 사유와 삶의 양식을 보여 준다. 특히 <이공본풀이>는 전국적인 분포의 흔적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대소설 <안락국전>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화와 소설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제4세계 문학으로서의 제주의 서사 무가가 지닌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이공본풀이>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가치가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과 관련된 무가문학 교육의 소재로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문학교과에서 巫歌를 敎育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재에는 제주의 巫歌는 배제되어 있다. 문학교육이 삶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지금도 구연되며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濟州巫歌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무가 교육이 ‘한국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문학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육이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풍부하게 맛보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상력과 통찰력을 길러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일<sup>1)</sup>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새롭고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소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심미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sup>2)</sup>

따라서 필자는 현재 왕성하게 구연되고 있는 제주의 敍事巫歌 중 <이공본풀이>를 무가 교육의 소재로 선택하여 그 속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사유 방식, 삶의 양식과 文學認識을 바탕으로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한국 서사문학의 原型性과 文化意識, 美的價値를 살펴봄으로써 文學敎科에서의 巫歌 指導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문학교육연구회(1987), 「삶을 위한 문학교육」, 연구사. p. 21.

2) 교육부(1995),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p.59-60.

## 2. 先行研究 檢討

지금까지 濟州巫歌를 보는 눈들은 참으로 다양하였다.<sup>3)</sup> 원래 巫歌는 무당이라는 주체가 있게 마련이고 노래라는 형식을 빌어 전달되기 때문에 巫俗의 한 분야로 취급되었고 巫俗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濟州巫歌에 대한 研究는 巫俗信仰의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독립된 본풀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아니라 巫俗儀禮로서 혹은 곳의 祭次와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공본풀이>에 대한 독립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巫俗 敍事詩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하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루면서 <이공본풀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있다. 조동일은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sup>4)</sup>에서 인물의 능력과 행적에 따른 역사적

---

3) 제주의 敍事巫歌 중 일반신 본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같은 입장으로는 이수자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수자는 제주무가의 신화적 성격을 고찰하고 제주도 큰곳의 구조를 재조명했다.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 서사시로 보는 입장이 있다. 巫歌를 서사시적 관점으로 한 연구들은 서대석, 박경신, 김현선, 강정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서대석은 판소리와 巫歌의 대비연구를 통하여 판소리와 敍事巫歌의 관련성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서사시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巫歌의 서사시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 박경신은 현장을 통하여 巫歌의 작시원리를 살폈다. 김현선은 경기도 도당굿을 자료로 巫歌의 작시원리와 마을, 연행자, 관중에 의한 변화양상을 고찰하면서 巫歌를 서사시로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강정식은 <이공본풀이>의 문학성에 주목하고 본풀이는 집단적인 사고를 반영한 서사시로 보고 있다.

서대석(1979), “판소리와 서사무가의 대비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3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박경신(1991),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현선(1991),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조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강정식(1988), “濟州巫歌 二公本の 口碑敍事詩의 性格”, 『우리문학연구』7, 우리어문학회.

(3) 놀이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연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巫歌를 연극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무병이다. 문무병(1984), “제주도 곳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런데 위의 다양한 시각들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시각을 부정하고 있다. 장주근은 본풀이는 서사시 이전의 신화이며, 그 신화의 체계와 원리인 동시에 제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본풀이는 서사시적 성격을 띄고 서사시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 그것은 엄연한 서사시 이전의 신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학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신화는 서사시의 이전 단계로 설정한 결과이며 따라서 고대 제의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장주근(1994), “제주도서사무가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11집, 제주도연구회. p. 34

따라서 제주무가를 보는 시각은 서사, 서정, 극이라는 복합적인 장르로 인정하는 셈이다.



전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은 凡人의 성격이 강함을 직시하여 ‘범인의 이야기’로 다루었다. 지금까지 敍事巫歌를 무속서사시의 관점에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끌 만하다.

이수자는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sup>5)</sup>에서 濟州巫歌의 12본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큰곳의 내적인 구성원리를 밝히고, 그 구조적 원리에 따라 개별의례가 순서대로 제의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공본풀이>는 죽음과 환생의 원리에 따라 죽음과 환생을 관리하는 신의 내력담으로 보아 죽음과 환생의 기능을 하는 ‘꽃’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는 제의와 본풀이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巫歌를 文學的인 측면에서 다룬 것은 홍기문의 ‘朝鮮神話研究’<sup>6)</sup>에서부터다. 홍기문은 <이공본풀이>가 ‘월인천강지곡’의 일부로 수록된 <안락국태자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료로 보았다. 서대석도 ‘敍事巫歌研究’<sup>7)</sup>에서 巫歌의 文學적 측면을 다루었다. 그는 <안락국태자경>과 <안락국전>은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플롯, 인물들을 분석한 결과 <이공본풀이>는 <안락국태자경>과 <안락국전>과는 구별된다고 살폈다. 장주근은 ‘敍事巫歌의 始原과 민속문예상의 위치’<sup>8)</sup>라는 논문을 통하여 <이공본풀이>는 중국의 講唱文學인 變文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이공본풀이>와 관련된 文學작품들을 중심으로 상호 영향관계나 <이공본풀이>의 형성과정을 중점으로 다루었을 뿐, 文學으로서의 <이공본풀이> 자체에 관한 연구는 되지 못하였다.

한편 강정식은 ‘濟州巫歌 이공본의 口碑敍事詩의 性格’<sup>9)</sup>을 통하여 文化배경과 결부시켜 전승양상,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공본의 형성과정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하여 <이공본풀이>의 構造, 전승상의 특성, 이공본의 독자적 성격 등을 밝혔다. 그리고 윤찬주는 ‘安樂國太子經 變相圖’라는 새로운 자료를 첨가시켜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특징을 살폈다.<sup>10)</sup>

4)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5) 이수자, 전게서. 참조.

6) 洪起文(1988), 『朝鮮神話研究』, 지양사.; 윤찬주(1991),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9.에서 재인용

7)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학원.

8) 장주근(1973), “서사무가의 시원과 문속문예사상의 위치”, 『문화인류학』 제5집.

9) 강정식(1988.), 전게서.

이외에도 <이공본풀이>의 構造를 다른 지역의 민담의 構造를 비교 고찰한 연구가 있다. 김영일은 ‘한국 무속서사시의 서사구조 연구’<sup>11)</sup>를 통하여 ‘본풀이’의 서사모형과 민담구조의 대비를 통하여 ‘탐색물’과 ‘중재항’ 설정이 敍事巫歌의 중요한 구조임을 밝혔다. 이는 敍事巫歌의 서사모형과 인물의 유형을 설정하여 인물을 무속영웅 혹은 문화 유형으로 파악하고 민담의 구조를 찾아내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공본풀이>가 지니는 문화적 위상이나, 무속과의 관련성, 큰곳의 체계적 구조, 고대소설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이공본풀이>의 연구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다른 문학과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개별적인 본풀이를 대상으로 개별 본풀이의 문학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다. 더구나 그 개별 무가를 통하여 현장의 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거나 연구한 실례는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공본풀이>의 문학적인 가치와 교육적인 가치를 접목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研究資料와 方法

이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무가 자료는 濟州敍事巫歌 중 <이공본풀이>이다. <이공본풀이>는 큰곳의 祭次에서 뿐만 아니라, 불도맞이 祭次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구연되는 노래로서 제주巫歌의 대표적인 것이다. 한락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인물이 저승으로 가게 되는 과정과 사연, 그리고 한락둥이가 저승의 꽃감관이 되는 來歷을 밝힌 일종의 緣起說話라 할 수 있는 敍事巫歌인 것이다.

현재 채록되어 발표된 <이공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 (가) 赤松智城·秋葉隆 채록 <朝鮮巫俗の研究 上>(1937)
- (나) 조홀대 구연, 진성기 채록 <巫歌본풀이사전>(1968)
- (다) 고산옹 구연, 진성기 채록 <巫歌본풀이사전>(1968)

---

10) 윤찬주(1991), 전계서.

11) 金永一(1985), “韓國巫俗敍事詩의 敍事構造研究”,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 (라) 장주근, <한국의 민간 신앙>(1973)
- (마) 안사인 구연, 현용준 채록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 (바) 현금순 구연, 강정식 채록 (1987)
- (사) 문창현, <風俗巫音>(1994)
- (아) 이승순 구연, 문무병 채록 <제주도무속신화>(1998)

위의 자료에 나타난 (가), (나), (다), (마)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비교가 이루어졌고<sup>12)</sup> 내용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위의 자료 중 이 연구에서는 (나)와 (다), 그리고 (마)를 연구자료로 택하고자 한다. 이 세 본은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의 경우는 내용이 풍부하고 서사적 구조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라)의 경우는 본풀이뿐만 아니라 본풀이가 구연되는 儀禮와 관련하여 채록·정리된 것이어서 본풀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바), (사), (아) 등의 자료들은 채록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며 또 이 연구에서 자료로 택한 본들과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무가 교육의 소재로 <이공본풀이>를 선택한 이유는 서사문학적인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본풀이>는 다른 巫歌와는 달리 기능을 중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고 있어서 巫歌教育의 소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나 <삼공본풀이>는 巫祖神에 대한 이야기와 前生神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러한 巫歌가 불려지는 경우는 특히 기능을 중시하는 경우에 한하지만<sup>13)</sup> <이공본풀이>는 참여자들이 흥겹게 듣고 동참할 수 있는 무가 중 특히 文學的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濟州巫歌의 <이공본풀이>는 敍事巫歌로서의 완결된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한국문학의 서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 서사문학의 原型性, 構造와 價値를 확인해 보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주인공의 출생, 성장, 고난, 신으로서의 좌절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巫歌이다. 그래서 巫歌의 敍

12) 강정식(1988), 전계서. pp. 268~273. 참조

13) 상계서. p. 267.

事性を 확인해 볼 수 있고 巫歌에 나타나 있는 意識을 살펴보는 데 容易할 뿐만 아니라, 敘事巫歌의 特性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공본풀이>는 呪花 管掌神話로서, 독립된 祭次인 <이공본풀이> 祭次와 불도맞이에서 노래로 불려지기 때문에 독립된 神話로 다룰 수 있으면서, 巫歌의 機能과 쉽게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敘事巫歌의 두 가지 축은 意味의 表現과 機能의 遂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본 연구에서는 <이공본풀이>의 文學적 가치를 검토하고 제의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巫歌의 指導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現행 학교 敎育과정을 통하여 現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巫歌敎育의 實態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서사무가의 교과지도 현황 개관을 통해서 巫歌의 어떤 소재를 敎育 對象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巫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해 보고 실제로 巫歌 지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이 연구에서 巫歌의 指導方向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공본풀이>의 文學적 위상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작품을 이루는 서사적 요소들을 살펴본 후, 작품의 내적 구조를 청자들의 의식세계와 관련시켜 분석하겠다. 이는 앞으로 검토할 본풀이와 청자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듯이 文學의 존재 이유는 그들의 공통된 의식의 바탕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평범한 인물이 신으로 좌절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기본 방법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여러 본풀이를 통해 그 이본들의 특성과 유형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풀이는 곳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통해서 그 곳에 동참하는 민중들이 누리는 구비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풀이의 특성이 고대문학에서 현대의 문학에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밝혀 巫歌의 指導方向을 밝히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인물의 관계는 단순 대립의 構造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아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나가도록 하겠다.

Ⅳ장에서는 <이공본풀이>라는 작품에 나타난 文學意識을 확인해 보겠다. 이는 본풀이에 있어서 전개되는 사건의 내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의식은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작품을 통하여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논리는 무엇인지

를 밝히고, 작품의 構造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밝힘으로써 敍事巫歌의 指導方向으로 삼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현장에서 敍事巫歌를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원형심상적 측면, 서사문학적 측면, 문화 의식과 환경적 측면 그리고 국문학과와 통시적 측면과 관련하여 巫歌 指導方向을 제시 하겠다.

VI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겠다.

## II. 敍事巫歌의 教科指導 概觀

현행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는 巫歌 敎育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巫歌의 題材設定 현황을 살펴보고, 巫歌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의 상태를 살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指導 方向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 1. 題材設定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은 검인정 교과서 18종<sup>14)</sup>이다. 그 중 구비문학 제재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은 <표 1>과 같다.

분석대상 대상 교과서 중 2종의 교과만을 제외하고 난 모든 교과서에 구비문학 제재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5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면<sup>15)</sup>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敍事巫歌와 관련된 제재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5종의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敍事巫歌를 수록하고 있는 5종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巫歌의 종류는 두 편에 불과하다.

---

14) 현행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로 채택되고 있는 문학교과서는 모두 17종이다.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권영민, (주)지학사   | ○ 김태준외, (주)민문고   | ○ 우한용외, 동아출판사     |
| ○ 김대행외, (주)교학사  | ○ 남미영외, 동아서적(주)  | ○ 윤병로외, (주)노벨문화사  |
| ○ 김봉균외, 지학사     | ○ 박갑수외, (주)지학사   | ○ 이문규외, 선영사       |
| ○ 김열규외, 동아출판사   | ○ 박경신외, 금성교과서(주) | ○ 최동호외, 대한교과서     |
| ○ 김용직외, 대일도서    | ○ 성기조, 학문사       | ○ 한계전 외, 대한교과서    |
| ○ 김윤식외, 한샘출판(주) | ○ 오세영외, (주)천재교육  | ○ 구인환 외, 한샘출판사(주) |

15) 5차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과서 총 15종 중 8종에만 구비문학과 관련된 제재가 수록되어 있다.

이현숙(1984), “<바리공주>무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p.95~96.

<표 1> 구비문학 체재설정 현황

교과서명	지 은 이	출 판 사	설 화	민 요	판소리	민 속 극	무 가
문학(하)	김용직외	대일도서	• 단군신화			• 봉산탈춤	
문학(상)	김대행외	교학사			• 흥보가	• 꼭두각시놀음	
문학(하)	"	"	• 단군신화				
문학(상)	김봉군외	지학사	• 단군신화 • 서동설화 • 지귀설화				
문학(하)	"	"			• 박타령	• 봉산탈춤	• 성조풀이
문학(하)	윤병로외	(주)노배문화사		• 시집살이			• 바리공주
문학(하)	성기조	학문사	• 단군신화 • 지귀설화	• 아리랑	• 박타령	• 꼭두각시놀음	• 바리데기
문학(상)	우한용외	동아출판사	• 단군신화	• 용부가			
문학(하)	"	"	• 동명왕신화	• 논매기노래		• 봉산탈춤	
문학(상)	박경시외	금성교과서(주)	• 단군신화				• 성조푸리
문학(하)	"	"		• 시집살이		• 봉산탈춤	
문학(상)	남미영외	동아서적(주)	• 지귀설화	• 시집살이			
문학(하)	"	"	• 단군신화 • 설씨녀와기실		• 박타령		
문학(하)	최동호외	대한교과서	• 단군신화 • 지하국의도적			• 봉산탈춤	
문학(하)	"	"				• 통영오광대	
문학(상)	오세영외	(주)천재교육	• 단군신화 • 주몽신화 • 달팽이각시	• 시집살이노래	• 흥부가	• 수영들놀음	• 바리데기
문학(하)	"	"	• 흥수신화				
문학(상)	박갑수외	지학사	• 단군신화 • 구토지설	• 시집살이 노래	• 흥보가	• 봉산탈춤	
문학(상)	한계전외	대학교과서	• 단군신화	• 모내기노래	• 흥보가	• 봉산탈춤	
문학(하)	"	"		• 아리랑타령			
문학(상)	김대준외	(주)민문고	• 동명왕신화 • 단종의 혼령 • 어느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	• 논매기 노래 • 시집살이요	• 수궁가	• 봉산탈춤	
문학(상)	김윤식외	한샘출판(주)	• 단군신화			• 봉산탈춤	

5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巫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교과서가 <바리공주> (혹은 바리데기)를 수록하였고, 나머지 2종의 교과서는 <성조풀이>(혹은 성조푸리)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巫歌가 문학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설령 巫歌 교육의 위상이 정립되어서 나타난 것이라면 학교 교육현장에

서 巫歌의 비중을 약화시키거나, 교과서 집필진들의 巫歌教育에 대한 소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5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巫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敍事巫歌의 수록 형태

교과서 수록형식	<A>오세영외	<B>박경신외	<C>성기조	<D>윤병로외	<E>김봉균외
수록제재	바리데기	성조푸리	바리데기	바리공주	성조풀이
제시단원	III. 한국 고전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4. 근대 여명기의 문학 (8) 무가의 문학 세계	II. 서사 문학의 이해 2-3. 소설의 문체와 시점	IV. 구비문학과 한시 2. 민요와 무가	III. 문학과 현실 1. 삶의 총체적 모습 2) 문학의 가치	VII. 근대 의식 성장기의 문학 1.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2) 성조풀이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재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巫歌 수록 제재가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巫歌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단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볼 巫歌의 概念과 認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2. 概念과 認識

교과마다 巫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문학교과서 17종에 드러난 巫歌에 대한 概念이나 認識의 實態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요는 무가(巫歌)와 함께 서정 갈래의 최초의 형태이다.

< 김태준 외 (1995), 『고등학교 문학 (상)』, (주)민문고, p.91. >

<2> 우리 고대 문학인 원시 종합 예술은 애초에 무가(巫歌) 등의 형태를 취했으리라 짐작된다.

< 김태준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주)민문고. p.229. >



<3> 판소리는 사대부계의 소설이나 산문 문학의 단편적인 요소인 설화에다, 광대의 장기인 민요(民謠), 무가(巫歌), 서사민요(敍事民謠)를 삽입하여 대사를 이룬다.

< 김태준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주)민문고, p.246. >

<4> 우리 시가사(詩歌史)에서 소망과 기원을 담고 있는 최초의 노래는 ‘구지가(龜旨歌)’이다. 이 노래는 고대 국가 형성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탄생을 바라는 소망을 신을 향해 기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무가(巫歌)나 민요(民謠)에도 인간의 소박한 꿈과 소망이 담긴 경우가 많다.

< 박경신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금성교과서(주), p.81. >

<5> 이 밖에도 선비 정신과 지조(志操), 무속 신앙(巫俗信仰), 자연 친화 등이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 최동호 외(1995), 『고등학교 문학(상)』, 대한교과서, p.280. >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가’에 대한 독립적인 개념을 설정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개념을 언급하더라도 다른 장르와의 관련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한 것과는 달리 巫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교과서도 있다. 이것은 巫歌文學 자체에 대한 언급만 한 것이 아니라 敍事巫歌와 敍事性을 언급함으로써 敍事巫歌의 意義를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6> 우선 무가는 원래 무당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주술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 체험과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이 중, 서사 무가는 단순히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격을 갖춘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특성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 김봉군·최혜실(1996),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p. 53. >

위의 인용 중 <1>은 ‘시와 민요’를 논의하면서, <2>는 ‘고대문학의 전개’를 논의하면서, <3>은 ‘한국문학의 흐름’ 중 판소리문학을 논의하면서, <4>는 시의 ‘내용과 주제에 따른 감상’을 논의하면서, <5>는 ‘한국문학의 특질’을 논의하면서 언급된 내용들이다. <6>은 ‘서사문학 이해의 기초’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의 교과서 巫歌에 대한 인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진다. 즉 <1>~<5>는 巫歌를 독립된 문학의 형태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민요, 판소리, 시의 특징들은 논의하는 데 부수적으로 끼어 들어간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巫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며 아울러 巫歌가 문학교육의 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學習 內容

巫歌의 學習 內容은 구체적으로 수록된 작품의 ‘학습목표’와 ‘작품의 감상 안내’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리테기>를 무가 교육의 제재로 삼은 것은 세 개의 교과이다. 앞서 제시한 <표 2>의 자료를 참고로 할 때 <A>에서는 학습목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무가의 문학적 특성을 안다.
- (2) 무가 속에 담긴 정서와 인생관을 이해한다.

<D>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세 가지이다.

- (1) 이 글을 통하여 설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 (2) 이 설화의 내용을 통하여 고대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본다.
- (3) 설화와 다른 문학과와의 관계를 안다.

반면 <D>와 동일한 巫歌를 소재로 삼은 <C>에서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조풀이를 제재로 한 교과는 두 개인데, 그 중 한 교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한 교과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E>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두 가지이다.

- (1) 무가의 서사구조를 안다.
- (2) 무속의 세계에 나타나는 민족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E>와 동일한 巫歌를 소재로 한 <B>에서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엄밀히 따진다면 <C>와 <B>도 ‘작품이해와 감상’부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巫歌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학습목표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학습 목표는 그것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巫歌가 지닌 文學的 特性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巫歌가 지니고 있는 문학 일반적 특성보다는 <바리테기>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巫歌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학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무가문학 제재를 통해서 그 작품이 지니는 개별적인 특성, 미적 구조, 작품의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도 문학을 감상하는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가를 문학 교과과에서 학습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가 자체의 의미나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무가를 통하여 문학 교육의 목표 달성에 있다고 한다면 문학교육의 제재로서의 무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한 巫歌의 교과 지도 현황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할 수 있다.

<표 3> 巫歌의 教科 指導 現況

교과서 교과 체제	오세영외	박경신외	성기조	윤병로외	김봉균외
수 록 제 재	바리데기	성조푸리	바리데기	바리공주	성조풀이
제 시 단 원	III. 한국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4. 근대 여명기의 문학 (8) 무가의 문학 세계	II. 서사문학의 이해 2-3. 소설의 문체와 시점	IV. 구비문학과 한시 2. 민요와 무가	III. 문학과 현실 1. 삶의 총체적 모습 2) 문학의 가치	VII. 근대의식 성장기의 문학 1.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2) 성조풀이
내 용 제 시	○ 분량:3쪽 (257-259쪽) ○ 제시방법 ▶ [창]과 [말]로 구분 ▶ 현대어로 표기 하되 고어적 표현은 살림	○ 분량: 4쪽 (194-197쪽) ○ 제시방법: ▶ 채록 원본	○ 분량:4쪽 (213-216쪽) ○ 제시방법: ▶ 현대어	○ 분량:4쪽 (23-26쪽) ○ 제시방법: ▶ 현대어	○ 분량: 3쪽 (58-60쪽) ○ 제시방법: ▶ 채록원본
학 습 목 표	○ 무가의 문학적 특성 ○ 무가 문학 속에 담긴 정서와 인생관	×	×	○ 설화의 특징 ○ 고대 선인들의 정신세계 ○ 설화와 다른 문학과의 관계	○ 무가의 서사구조 ○ 무속에 나타난 세계관
학 습 활 동	1. 확인문제 2. 학습활동 (1) 연구문제 (2) 토론과제	연구학습문제	학습활동	학습문제	학습활동 토론학습
이해와 감상	○ 판소리 문학과 연관 ○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 갈래 ○ 성격 ○ 배경 사상 ○ 주제 ○ 구성 ○ 표현상의 특징	○ 바리데기 이야기의 구조 ○ 윤리성(효)과 연관	○ 내용과 미학을 관련시킴 (송고미,비장미)	○ 작품의 구조 ○ 영웅의 일생
참고·보충 자료	○ 무가의 주술성과 문학적성	○ 성조풀이와 성조푸리 ○ 바리공주 ○ 제석본풀이 ○ 장자풀이	○ 바리데기의 줄거리 ○ 서사무가의 종류 ○ 무가의 특징 ○ 우리민족과 무가의 관련양상	○ 巫歌의 특징 ○ 바리공주	○ 작품의 전체 줄거리 ○ 손진태 ○ 무가의 특징
더 읽을 거리	당금야기(제석본풀이), 성조풀이	제주도 무가 '문전신본풀이'	성조푸리	효녀 '지은'	×
출 전	동해안 무가	동래 지방, 朝鮮神歌遺篇	경북 동해안 지방	×	×

위와 같은 巫歌 指導의 實態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巫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巫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巫歌에 대한 認識 樣相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정도는 우선 문학의 본질을 사상성에서 찾을 것인가 예술성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문학이란 언어의 형상화를 통하여 미의식에 호소하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생과 사회의 의미를 새롭게 풀이하고 탐구해 가는 思想의 世界요 哲學의 世界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巫歌에 대한 인식이 옳곧게 자리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巫歌를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의 밝힌 견해에 의하면 이 세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세 가지 근본적인 수수께끼가 있다고 한다. ‘우주란 무엇인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는 생명에 대한 것이다<sup>16)</sup>. 무가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 내리는 수수께끼이다. 그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사고 등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래와 생존의식에 대하여 사고해 왔다. 신화와 전설 및 철학들은 그때그때 인류가 도달한 인식의 형태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서고 보면 결국 학교에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巫歌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학교과에서 巫歌 指導의 方向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濟州 敍事巫歌가 지니는 位相을 고려하여 <이공본풀이>를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文學教科에서 敍事巫歌 指導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학생들에게 교육의 제재를 확대하자는 면도 포함된다.

---

16) 왕빈(1980),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p.83.

### Ⅲ.<이공본풀이>의 文學的 位相

현행 문학교과에는 <이공본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공본풀이>를 통해서 무가 문학 교육의 체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분포의 흔적을 보인다는 점<sup>17)</sup>, 제4세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sup>18)</sup>, 한국 서사문학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전승되고 있는 <이공본풀이>는 여러 이본이 있다. 전승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巫歌의 文學性을 찾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敍事巫歌 指導方向을 강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전승자료의 검토를 문학성에 관련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성에 대한 검토는 작품의 전개방식,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작품에 반영된 민중의식 등의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본 연구의 <이공본풀이>의 이본에 대한 검토는 敍事巫歌 指導方向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료 분석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본을 중심으로 <이공본풀이>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이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이공본풀이>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구조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기대된다.

본풀이는 심방이 굿의 對象神을 祭場으로 모시기 위해 노래로 부르는 창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대상신의 성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내용으로 신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신으로서의 직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의식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풀이에 나타난 신의 성격이나 능력은 굿의 대상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윤찬주, 전계서. pp. 6~7.

이수자(1993),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제주도연구회. pp.43~48.

18) 조동일(1997), 전계서. pp.25~35. 참조.

19) 김준기(1984),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p.3.

# 1. 異本과 類型

<이공본풀이>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인 한락등이가 저승의 꽃감관이 되는 내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락등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락등이를 중심으로 사건 전개 및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異本の 사건 전개 및 내용

각 본 사건요소	조흥대 본	고산옹 본	안사인 본
A. 조부모	◦ 김정국과 임정국	◦ 짐정국과 임정국	◦ 짐진국과 임진국
B. 조부모들의관계	◦ 친하게 지냄 ◦ 자식이 없음	◦ 친하게 지냄 ◦ 자식이 없음	◦ 친하게 지냄 (×) ◦ 자식이 없음
C. 기자	◦ 대상: 소림당에 수록됨 ◦ 과정: 임정국-수록체제공, 김정국-먹을 양식 제공	◦ 영급헌 산에 수록됨 ◦ 임정국-수록체 제공 김정국-먹을 양식 제공	◦ 영급 좋은 동계남절당에 원불수록됨 ◦ 과정(×)
D. 약속	◦ 아들이든 딸이든 혼사하기로 함(구덕혼사)	◦ 구덕혼사하기로 약속	◦ 약속(×) ◦ 구덕혼사지냄
E. 득 자	◦ 김정국-아들 ◦ 임정국-딸	◦ 짐정국-아들 ◦ 임정국-딸	◦ 짐진국-아들 ◦ 임진국-딸
F. 부모 결혼	◦ 실혼: 딸이 허혼으로 성사	◦ 임정국 딸의 주도로 성사	×(원강도령과 원강아미의 결혼)
G. 부모의 이별	◦ 원인: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오라고 함, 삼차사가 데려감 ◦ 이별에 대한저항: 없음 ◦ 상황: 임신 ◦ 이별의 방법: 제인장자집의 종으로 팔기로 함 ◦ 이별의 성립: 첫째·둘째딸 거절, 셋째딸 수락 ◦ 이별의 과정: 차별적 식사-(제안) 같이식사-(제안) 먼길에 나가 송별 ◦ 이별의주도자: 원강아미	◦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오라고 함. 삼차사가 데리러 옴 ◦ 원강아미의 삼차사 따돌리기 ◦ 원강아미가 따라 나섬 ◦ 원강아미를 친년장제집의 종으로 팔기로 함 ◦ 이별의 성립: 셋째딸 수락 ◦ 이별의 과정: 원강아미 제안으로 먼길에 나가 송별 ◦ 이별의 주도자: 원강아미	◦ 임신한 상황, 꽃감관으로 가게됨 ◦ 부부가 같이 떠남 ◦ 원강아미가 더 걸을 수 없어 만년장제집 종으로 팔기로 함 ◦ 이별의 성립: 죽은 뜰애기의 수락 ◦ 이별의 과정: 부부 맞상을 차린 후 이별 ◦ 이별의 주도자: 원강아미
H. 이별의 증표	◦ 증표: 용얼레기 한쪽, 참쌀 한귀통이	◦ 증표: 용얼레기 한쪽, 참쌀 한귀통이	◦ 증표: 홍얼레기 한쪽
I. 어머니와 장자의 관계	◦ 종살이(제인장자와 따로 떨어진 곳에 거처)	◦ 종살이(장자와 떨어진 울타리밖에 거처)	◦ 종살이(×)

각 본 사건요소	조흥대 본	고산용 본	안사인 본
J. 주인공의 탄생과 母的 수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인장자의 1차 몸 요구 - 거절: 애기를 낳은 후에</li> <li>◦ 주인공의 탄생 (한락동이)</li> <li>◦ 제인장자의 2차 몸 요구 - 거절: 애기가 서당에 다닌 후</li> <li>◦ 제인장자의 3차 몸 요구-거절: 아이가 밭갈이를 한 후</li> <li>◦ 제인장자가 죽이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자의 1차 몸 요구-거절: 애가낳고 기어 놀 때</li> <li>◦ 주인공의 탄생 (신산만산 한락동이)</li> <li>◦ 장자의 2차 몸 요구-거절: 아이가 서당에 들어 간 후</li> <li>◦ 장자의 3차 몸 요구-거절: 밭갈 나이가 된 후</li> <li>◦ 장자가 원강암이를 죽이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인장자의 1차 몸요구- 거절: 애기가 태어난 후</li> <li>◦ 주인공의 탄생 (신산만산할락공이)</li> <li>◦ 제인장자의 2차 몸요구- 거절: 15세 이후</li> <li>◦ 제인장자의 3차 몸요구(×)</li> </ul>
K. 고난의 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인장자 셋째딸이 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자의 셋째딸의 도움</li> </ul>	×
L. 또 다른 고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역을 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락동이: 낮에 나무 오십바리, 밤에 새끼 한동짜기</li> <li>◦ 어머니: 낮에 물명주 다섯 동, 밤에 물명주 두 동짜기</li> </ul>	×
M. 고난의 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락동이: 나무가 저절로해짐. 새끼도 저절로 꼬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 물명주 저절로 짜짐</li> <li>◦ 한락동이: 나무와 새끼 문제 저절로 해결됨</li> </ul>	×
N. 주인공의 떠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떠남의 방법: 콩 볶아 달라고 거짓말</li> <li>◦ 아버지 찾기 위해 어머니를 괴롭힘</li> <li>◦ 어머니의 거짓말</li> <li>◦ 진실을 밝힘</li> <li>◦ 떠남의 과정:</li> <li>◦ 증표를 찾아감</li> <li>◦ 소금 닳되 넣은 떡을 가지고 감</li> <li>◦ 자신의 행선지 알리지 말라고 요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떠남의 방법: 콩볶아달라고 거짓말 함</li> <li>◦ 아버지 찾기 위해 어머니를 괴롭힘</li> <li>◦ 어머니의 거짓말</li> <li>◦ 진실을 밝힘</li> <li>◦ 이별의 증표를 갖고 떠남, 소금 닳되 넣은 떡과 볶은 콩을 가지고 감</li> <li>◦ 행선지 알리지 말라고 요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떠남의 방법: 콩볶아달라고 거짓말을 함</li> <li>◦ 아버지 찾기 위해 어머니 괴롭힘</li> <li>◦ 어머니의 거짓말(×)</li> <li>◦ 증표와 메밀범벅 갖고 떠남</li> <li>◦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지 말라고 요구함</li> </ul>
O. 어머니의 고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인장자의 한락동이 찾기</li> <li>◦ 어머니의 거짓말 대응</li> <li>◦ 어머니를 죽이기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자의 한락동이 찾기</li> <li>◦ 어머니의 거짓말 대응</li> </ul>	×(암시적으로 나타남)
P. 주인공의 고난 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떡을 주어 천리통이와 만리통이의 추격을 뿌리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리통이와 만리통이의 추격을 뿌리침</li> </ul>	◦ 천년둥이와 만년둥이 추격 뿌리침
Q. 어머니의 죽음과 저승으로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죽음 물을 건너 꽃밭으로 감(귀말이 아래-점쟁이 만남-독막립-즈금태기-존동이-외가마귀만남-스담하는 여자만남-꽃밭 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죽음</li> <li>◦ 물을 건너 꽃밭으로 감(즈금태기-가마귀 만남-존동이-풀 위 - 스담하는 여자 만남-서천꽃밭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죽음)</li> <li>◦ 물을 건너 꽃밭으로 감(독막립-존동이-목-서천꽃밭 도착)</li> </ul>
R. 父子 상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정: 버드나무 위에서 부술부림(피흘림)-수두된 아이의 보고-꽃감관이 부름-꽃감관과 대면-성조성편을 물음-본미본장확인-아버지와 상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나무 위에서 피를 내어 글을 써 보냄</li> <li>◦ 꽃이 시들어 감</li> <li>◦ 꽃감관과의 대면</li> <li>◦ 증표확인</li> <li>◦ 아버지와 상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를 흘리니 연못이 잿아듦</li> <li>◦ 증표확인</li> <li>◦ 아버지와 상봉</li> </ul>

각 본 사건요소	조흥대 본	고산옹 본	안사인 본
S. 부자 관계의 의례	부친과 동일한 식사상 차림-식사상 받기 거절 -아버지 무릎에서 키오는 과정 재연	◦ 좌와 동일	×
T. 어머니 죽음 확인	◦ 귀마리 물-초대김받은 물 ◦ 독모림의 물-이대김 받은 물 ◦ 강알의 물-삼대김 받은 물 ◦ 별경한 물-사대김 받은 물 ◦ 외가가마귀-차사 ◦ 빨래하는 여자-어머니의 혼정	◦ 발등어리의 물 -초대김의 눈물 ◦ 독모림의 물-이대김의 눈물 ◦ 즈금대기 물-삼대김의 눈물 ◦ 별경한 물 -목베일 때 물 ◦ 가마귀 - 차사 ◦ 하얗게 차림한 여자 -어머니의 혼정 ◦ 나무할 때 도움, 새끼꿀때의 도움- 아버지가 도와줌	◦ 독모림의 물-초대김받은 물 ◦ 존동이물-이대김받은 물 ◦ 목의 물-삼대김받은 물
U. 꽃 획득	◦ 방법:아버지가 꽃을 꺾어줌 ◦ 꽃종류:팽오를 꽃,솔오를 꽃,오장육부 기릴 꽃, 불불을 꽃,멜망꽃,부제될 꽃 ◦ 추가사항:죽낭회초리	◦ 아버지가 꽃을 따줌 팽오를꽃, 솔오를꽃, 오장육부기릴꽃, 웃음웃일꽃, ,금유울꽃,생불꽃, 멜망꽃,악심꽃	◦ 아버지가 꽃을 줌 ◦ 꽃종류: 수레멜망악심꽃, 웃음웃을꽃,도환생꽃
V. 돌아온 후의 처신	◦ 방법: 아버지가 제시(청태국 마귀할망 만남-말즈똥부르고-일처리 후 어머니 살림) ◦ 제인장자 만남(재물을 많이 가져왔다고 속임-일가친척 다모임-웃음웃을 꽃내놓음) ◦ 멜망꽃 내놓아 죽임 ◦ 큰딸-가난할 꽃을 줌 ◦ 둘째딸-멜망꽃을 줌 ◦ 청태국할망-부자될 꽃 줌	◦ 좌와 동일 (부자될꽃을 주지 않음)	◦ 제인장자 일가친척 다 죽임
W. 말젓똥 처리	◦ 말젓똥: 살려달라고 애원 ◦ 말젓똥 이용하여 어머니 죽은 장소 찾고 어머니를 살려냄 ◦ 말젓똥을 스완으로 거느리고 꽃밭으로 감	◦ 말젓똥을 데리고 꽃밭으로 감	◦ 어머니 죽었던 자리에 죽은 딸 죽임
X. 어머니가 살아남	◦ 과정: 팽오를꽃,솔오를꽃,오장육부 기릴 꽃 놓은 후 죽낭회초리로 세 번 때림 ◦ 죽음에 대한 인식: 봄잠을 자고 깨어남	◦ 좌와 동일	◦ 도환생꽃으로 어머니 살려냄
Y. 신으로 좌정	◦ 사라도령-지승아방 ◦ 원강암이-지승어미 ◦ 한락동이-꽃감관	◦ 한락동이-꽃감관 ◦ 사라도령-지승아방 ◦ 원강암이-지승어명	×
Z. 세상의 모범	◦ 할아버지 살던 곳은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곳은 아들이 살아감	◦ 좌와 동일	◦ 사악한기가 열두 풍운 조화를 주는 법, 청새를 수레멜망꽃이라 부름



위의 <표 4>를 통해서 이본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홀대 본>과 <고산옹 본>은 사건 및 내용 전개가 거의 동일하나, <안사인 본>은 앞의 두 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안사인 본>은 「무속 자료사전」에 의례의 과정에 나타난 것을 수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공본풀이>의 내용 전개의 목적이 이미 앞에 제시되어 있다.

요질은 보난 옛날 옛적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상당 웨당 씨멜죽시기던  
수레멜망악심질이로고나. 수레멜망악심꽃 본초가 어디며 본산국이 어딜러나 호민……20)

결국 <안사인 본>은 수레멜망악심꽃의 본초와 본산국에 관한 풀이다. 따라서 <조홀대 본>과 <고산옹 본>은 '이공'이라는 신에 관한 신화로 제시된 것이고, <안사인 본>은 이공에 초점이 놓은 것이 아니라, 굿의 과정 중 질침의 과정에 나타난 길의 한 종류이고 그 길은 수레멜망꽃의 본원으로 연결되는 길이며 수레멜망꽃의 본산국에 관한 '제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神話란 항시 原古의 시대에 일어났던 신의 일에 기원하여 현존하는 이 세계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안사인 본>에는 <표 4>에서 제시된 <Y.신으로의 좌정>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Z.세상의 모범>도 다른 두 본과는 다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본들의 사건 전개 및 내용 요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구연자들의 구연 의도와 관계가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연 의도에 따라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상 세 본의 공통된 특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서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과 사건은 3대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둘째, 부모의 결혼(만남)-이별-만남(재결합)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셋째, 아버지 상실 -한락둥이 탄생 -어머니의 상실-아버지 찾음-한락둥이 능력 변화-어머니 찾음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풀이의 내용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인물과 사건의 관계가 결정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연자가 어떤 의도를 지니고 구연하느냐에 따라 본풀

---

20)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p.123.

이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안사인 본>의 구연의 의도와 <조흘대 본>이나 <고산옹 본>은 구연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쭈똥’을 죽는 내용으로 나타나거나 살리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구연자의 意圖에 따라 사건 전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굿과 聽者

본풀이는 무당(화자)이 神을 청자로 하여서만 이야기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청자(청중)들은 본풀이의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무당이 신을 청하여 기원의 말을 일방적으로 (청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다른 구비문학과는 달리 유독 巫歌만 청자로서의 인간을 배제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본풀이와 청자와의 관계를 논의하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본풀이가 인간의 문학임을 밝히고 인간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내어 문학교육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본풀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本에 관한 풀이다. 그 本이란 神의 根本, 來歷이며 풀이란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언어풀이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행동)의 풀이다. 언어풀이라는 점은 언어로서 전달의 매체를 삼은 것이요, 행위의 풀이는 행위를 매체로 삼은 것이다. 언어를 매체로 한 풀이는 구술상관이고 언어 문학적인 형태이나 행위의 풀이는 행동을 통한 전달의 양식을 띠는 극 형태이다. 제주도 巫歌의 본풀이가 언어로 행해짐과 아울러 ‘맞이’라는 연극적 행위를 통해 전승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장덕순은 「구비문학 개설」<sup>21)</sup>에서 巫歌의 특성으로 神性성을 제시하고 巫歌는 그 聽者가 神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인간들은 구경꾼일 뿐 巫儀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巫歌는 인간인 청자는 없어도 얼마든지 歌詠된다. 오히려 巫儀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이 듣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또다른 巫歌의 특성으로 오락성을 들고 巫歌 자체가 민중의 큰 구경

---

21) 장덕순 외(1984),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p.112.

거리<sup>22)</sup> 구실을 해 왔으며, 巫儀가 흥미롭다는 사실은 巫歌가 문학적으로 흥미롭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서로 모순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오락성은 참여한 청중(청자)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용준·현승환도 본풀이와 청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본풀이는 심방이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래하는 설화이므로 본풀이의 청자는 인간이기보다는 신이다. 물론 무의에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서 즐기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은 인간을 청자로 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상대로 하여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다.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의 원초적 세계가 현실에 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래하는 것이니, 본풀이는 그것에 알맞는 창 의 형식과 문장형식을 띠게 된다. 본풀이의 문장이 과거시제로 끝맺지 않고 현재시제로 끝맺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23)</sup>

결국 본풀이의 聽者는 人間이 아닌 神으로 규정하여 ‘敍事巫歌는 신을 청자로 하는 口碑文學이므로 인간을 상대로 하는 다른 口碑文學과 그 本性이 다름을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은 巫歌의 특성을 주술성이라는 점을 감안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주술성은 고정적인 관습상 변화를 거부하지만, 예술성은 새로운 인식이어야 하는 본질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sup>24)</sup> 특성을 놓친 결과라 여겨진다. 그 변화는 시대와 상황의 반영이면서 바로 듣는 자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한 마을의 역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살아있는 문예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sup>25)</sup>이다.

巫歌는 ‘巫’라는 특수한 개인이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을 향하여 노래한다고 해서 청자를 인간을 배제한 신으로만 설정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신이여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자가 반드시 신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란다.’, 혹은 ‘현 상황에는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 이러한 상황을 당신(나 이외의 존재)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탄식이나 기원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청자인 인간의 심정 혹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 상계서. p.114.

23) 현용준·현승환역주(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7-8.

24) 조동일(1980),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p.235.

25) 현길연(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p.25.

이는 선행 연구자가 언급한 ‘원초적 세계가 현실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실에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의 경험의 내용이 인간의 겪는 일상사와 관련을 맺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자를 인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청자를 인간이 포함되지 않은 신으로만 설정해 놓는다면 굳이 인간이 겪는 일상사를 신의 경험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는 결국 聽者가 인간이기에 이런 설정을 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神話는 보편적으로 神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다. ‘신에 관한 이야기’와 ‘신이 듣는 이야기’는 엄연하게 다르다. 신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가 일상의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에 관한 이야기는 무당이 신에 대하여 인간에게 전하는 하나의 담화 형식이다. 그러나 신이 듣는 이야기에는 제3자가 배제된 담화의 형태이다. 이는 전하려는 무당(화자)과 신(청자)만이 존재하여 제3자인 인간이 배제되어버린다. 이런 경우 인간의 존재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청자들이 심방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자들은 무당의 구연과정을 보고 ‘용한 심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巫歌는 神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神이 듣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청자로 人間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巫歌의 청자는 神이면서 동시에 人間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리라 본다.

그러면 <이공본풀이>와 聽者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이는 <이공본풀이> 구연과정 및 본풀이의 기능과의 관련성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우선 굿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성립된다. 이는 현실에서 필요성을 인식한 의뢰자가 있어야 성립됨을 의미한다. <이공본풀이>는 어떤 때에 성립되는가? 소아사령굿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소아사령굿은 죽은 사람, 즉 亡者의 혼이 저승으로 잘 인도되기를 기원할 때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살아 있는 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립된다는 말이다. 소아사령굿은 한편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자의 불안의 심리에서 출발한다.

정신적 실천에서 최상의 행복을 찾는 모든 관념론적 이론의 근저에는 불안이 존재한

다. 그것은 삶의 조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손실, 우발성에 대한, 의존에 대한, 가난에 대한 불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태, 포만, 신과 인간들 사이의 시기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다.<sup>26)</sup> 그래서 행복에 대한 불안이 존재함으로써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본풀이는 성립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불안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다.

본풀이가 超越的, 非日常的 神을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현실적, 지상적인 색체를 띠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곁집 속에 聽者들의 갈망, 즉 죽음 극복에 대한 욕구, 삶의 두려움에 대한 해소, 死者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을 본풀이에 심어놓은 것이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곁에 있으므로) 고통을 받거나 희망을 갖는 인간들은 오직 다른 세계로 도약해 들어가야만 그들 자신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청자들이 본풀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본풀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그러한 것을 단지 신의 이야기로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청자들에 대한 문학이며 자신의 발견의 과정으로서의 문학이다. 우리는 「이솝우화」가 그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에게보다는 인간에게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풀이의 구연 과정에는 곳의 의뢰자뿐만 아니라,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동참한다. 이는 집단구성원(청자)들도 실제적 생활에서 느끼는 공포감, 두려움, 아니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자신의 죽음이나 자식의 죽음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본풀이의 구연과정에는 동일한 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동참한다. 천상계, 즉 비일상계를 언급하는 것은 理想의 現實化, 즉 비일상적 세계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理想에 눈뜨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저승의 설정은 인간의 현실적 갈등을 진정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강정식이 본풀이의 세계를 ‘信仰民의 현실을 이상화해 놓은 세계’<sup>27)</sup>라고 살핀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본풀이가 단순한 願詞에서 복잡한 이야기로 변화되는 데는 필연적으로 청중들의 의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듣는 사람들은 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함에 이르게 된다. 즉 신과 자신이 같은 정서에 이르게 된다. 신에 대한 祈求內容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형된 것은, 바로 그 呪願을 직접 듣는 민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sup>28)</sup>

26) H.마르쿠제, 崔鉉·李根英 역(1992), 「미학과 문화」, 범우사, p.22.

27) 강정식(1988), 전계서. p.295.

그러면 본풀이의 구연과정에서 구연자(무당)는 청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본풀이를 一般神, 堂神, 祖上神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직능과 관련된 성격이다. 이 직능과 성격은 결국 청자를 달리함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마을의 당신의 경우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본풀이의 聽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 4>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우선 등장인물이 제시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祖父인 임정국과 김정국이 살고 있는 나라는 ‘임정나라와 김정나라’이다. 그리고 조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임정국과 김정국이며, 부모는 사라도령과 원강암이이고, 주인공은 한락둥이이다. 이들의 이름은 일상사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지만, 조부모명과 나라명이 동일한 경우는 드물다. 이는 한 개체의 발생(탄생)을 고유한 영역(나라)으로 삼은 결과이다. 그러면 왜 이런 설정이 가능했을까? 이는 당신본풀이의 명칭이 구체적인 지역명과 인명을 지닌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즉 일반신본풀이인 경우는 우선 인간 일반의 문제를 다루는 신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가 설정되고 그에 따라 추상적인 지역명과 인명을 사용하는데, 이는 범위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지명과 인명이 구체적인 것은 청자들이 그 당의 신을 믿고 따르며 그의 권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청자들(단골)이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주관하는 신은 실제 인명을 사용해야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의 설정과 관련지어 살펴보도록 하자.

삼차사가 내려와 한락둥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부분과 원강암이와 한락둥이가 사역을 당할 때 일이 부분적으로 외부적(신이한 요소)인 도움을 받는 부분, 한락둥이가 물을 건너 저승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인간세계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다. 특히 제인장자가 원강암이의 몸을 요구하러 오는 부분과 원강암이의 거절의 방법(요개 저개 어제저녁도 ……), 그리고 거절의 재치는 청자들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몽둥이로 개 후려치듯 장자를 괴롭히는 과정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과정은 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

---

28) 현길연(1981), 전계서. p.28.

수단일 뿐만 아니라 청자와 동일한 삶을 사는 존재라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청자를 신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리라고 본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풀이는 신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청자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공본풀이>는 청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한편의 文學作品으로 볼 수 있다.

### 3. 敍事와 背景

巫歌는 巫에 의하여 무속적 의례에서 歌詠되는 口碑物이기 때문에 그 구연 주체인 무당이나 그 구연 환경인 巫俗儀禮와 분리해서는 논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공본풀이>의 서사 역시 巫歌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특히 <이공본풀이>를 통해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본풀이가 직접 구연되는 서사적 공간을 배제하고서는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의미를 무속 의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事件

- (1) 부자인 임정국과 가난한 김정국이 이웃하여 살았다.
- (2) 둘 다 자식이 없어 걱정하였다.
- (3) 임정국이 수륙채를 들고 김정국은 양식을 대어 기자불공을 드렸다.
- (4) 돌아오는 길에 자식이 태어나면 서로 혼사하기로 약속하였다.
- (5) 딸(원강암이)을 낳은 임정국은 아들(사라도령)을 낳은 김정국과의 혼사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 (6) 원강암이의 허락으로 사라도령과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 (7) 사라도령은 저승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가게 되었다.
- (8) 임신한 상태로 원강암이는 사라도령과 서천 꽃밭으로 함께 떠났다.
- (9) 가는 도중 원강암이는 힘이 들어 자신을 장자 집 종으로 팔아 두고 가기를 원했

다.

- (10) 장자집 셋째딸의 허락으로 원강암이는 장자 집 종으로 팔렸다.
- (11) 자식이 태어나면 붙일 이름을 지어 주고 서로 신표를 나누고 둘은 이별하였다.
- (12) 종이 된 원강암이에게 장자가 몸을 요구하나 핑계를 대어 거절하였다.
- (13) 원강암이는 한락둥이를 낳아 길렀다.
- (14)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장자는 원강암이를 죽이려 하였다.
- (15) 셋째딸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 (16) 장자는 모자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지만 신이한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였다.
- (17) 고난이 계속되자 한락둥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를 원하였다.
- (18)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듣고 신표를 받아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 (19) 한락둥이가 떠난 것을 안 장자는 원강암이를 죽이려 하였다.
- (20) 장자는 천리통이와 만리통이를 시켜 한락둥이를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하였다.
- (21) 화가 난 장자는 원강암이를 죽여 청대밭에 버렸다.
- (22) 한락둥이는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도착하였다.
- (23) 꽃감관을 만나 신표를 증거로 자식임을 증명하였다.
- (24) 부자간의 의례를 행하였다.
- (25) 아버지는 한락둥이가 물을 건너게 된 연유와 죽은 어머니에 대해 말해 주었다.
- (26) 한락둥이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주화를 얻어 장자 집으로 돌아왔다.
- (27) 장자는 돌아온 한락둥이를 죽이려 하였다.
- (28) 한락둥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장자 일족을 모았다.
- (29) 주화로 장자 일족을 멸족시켰다.
- (30) 셋째딸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죽은 곳을 찾아 어머니를 살려내고 서천꽃밭으로 갔다.
- (31) 한락둥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었다.

이 본풀이의 핵심에 놓인 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사건이다. 한락둥이가 죽은 어머니를 살려 내고 어머니를 죽인 장자를 죽인 후 헤어졌던 아버지와 다시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는 본풀이가 서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는 神話다. 神話는 일반적으로 청자들이 신성하게 받아들임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는 청자들의 의식이 차원이다. 그렇다면 이 본풀이의 신성성을 어디에 있다고 믿는 것인가? 한락동이 죽은 어머니를 살려 환생시켜내는 데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한락동이 생사를 주관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청자들은 한락동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神異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神異한 사건은 사람의 생사를 관장하는 것이 꽃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 (26)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식물계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sup>29)</sup>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본풀이의 핵심이 생사를 주관하는 신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 평범한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것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도 모르는 어떤 神異한 요소에 의하여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다<사건(16)>.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 본풀이를 神話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 가지의 動機들로 구성되고 있다. 물론 事件과 動機를 엄밀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본풀이가 불러지게 되는 배경과 관련하여 이 본풀이의 주요 동기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둘 다 자식이 없어 걱정하였다(사건2). 이는 불공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건(4)의 동기이기도 하다.

<2> 딸(원강암이)을 낳은 임정국은 아들(사라도령)을 낳은 김정국과의 혼사를 결정하지 못하였다(사건5). 이는 원강암이가 사라도령을 따라 나서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근본적 동기가 된다. 즉 이 본풀이는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다시 이별이 없는 세계를 갈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이별이 꽃감관으로 가는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은 남편이 가는 길이 곧 인간의 세계와는 달리 저승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면 이이야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원강암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9) 이수자(1993), 전계서. p.25.

- <3> 임신한 상태로 원강암이는 사라도령과 서천 꽃밭으로 함께 떠났다(사건8). 원강암이가 고난을 겪게 되는 근본적 동기이다.
- <4> 장자집 셋째딸의 허락으로 원강암이는 장자 집 종으로 팔렸다(사건10). 셋째딸의 허락으로 인하여 원강암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락동이가 셋째딸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의 근본적 동기이다. 이는 사건(15)가 존재할 수 있는 동기이기도 하다. 이는 이본마다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sup>30)</sup>, 여기에는 구연자들의 가치관이 크게 개입되어 나타난다. 즉 구연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살려 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장자의 대리인으로 보아 양값음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 <5> 자식이 태어나면 붙일 이름을 지어 주고 서로 신표를 나누고 이별하였다(사건11). 신표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바로 앞으로 태어나는 자식은 아버지와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건(18)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동기 <1>과 관련하여 다시 상봉이 있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 <6> 종이 된 원강암이에게 장자가 몸을 요구하나 핑계를 대어 거절하였다(사건12). 이는 원강암이가 죽게 되는 동기이면서 동시에 한락동이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된다.
- <7> 고난이 계속되자 한락동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를 원하였다(사건17). 이는 사건 (12), (13), (14)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락동이가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근본적 동기를 이룬다. 즉 고난이 닦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고난이 닦치지 않는다면 한락동이는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이별의 상황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8> 화가 난 장자는 원강암이를 죽여 청대밭에 버렸다(사건21). 이는 이 본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락동이가 장자를 죽이게 되는 근본적 동기이다. 그리고 한락동이의 능력을 시험하게 되는 동기이다.
- <9> 한락동이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주화를 얻어 장자 집으로 돌아왔다(사건26). 주화 획득은 한락동이의 능력 획득의 주요 원인이며 동시에 어머니를 살려내는

---

30) <조흥대 본>에서는 ‘스완으로 거느리고 간다’고 되어 있으며, <고산옹 본>에서는 스완이라는 구체적 역할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테리고 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사인 본>에는 ‘어머니 죽었던 자리에 죽어버린다’고 되어 있다.

계기가 된다.

<10> 셋째딸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죽은 곳을 찾아 어머니를 살려내어 서천꽃밭으로 갔다(사건30). 한락동이가 저승의 꽃감관으로 좌정하게 되는 동기이며 동시에 이 본풀이가 불려지게 되는 근본적 계기이다.

위의 동기와 사건들을 연결하고 다시 본풀이의 구연되는 과정이나 배경들을 종합하여 다시 이 본풀이를 역으로 구성해 나가면 이 본풀이가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1> 이공(한락동이)이라는 신이 존재한다.

<2> 왜 신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는 어머니를 살려낸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3> 어떻게 어머니를 살려내게 되었나? 이는 생명을 관장하는 꽃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4> 그 꽃은 어디에서 얻었는가? 서천꽃밭이라는 곳에서 얻었다.

<5> 서천꽃밭은 어디에 있는가? 일상의 세계에서 물을 건너 새로운 세계에 존재한다.

<6> 서천꽃밭의 누가 주화를 주었는가? 아버지가 주었다.

<7> 아버지는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되었는가? 어머니와 이별하여 꽃감관으로 명을 받고 가게 되었다.

<8> 이별한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나? 장자에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9> 어머니는 왜 죽임을 당하였나? 장자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10> 어머니는 왜 미움을 샀는가? 장자의 몸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11> 왜 장자는 원감암이에게 몸 요구를 하였나? 원감암이는 종이기 때문이다.

<12> 왜 장자집 종으로 팔렸는가? 임신한 상태로 아버지를 따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3>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김진국과 임진국의 딸과 아들이다.

<14> 김진국과 임진국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웃하여 친하게 지내며 살았기 때

문이다.

이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또 다른 의문과 해결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느 사건도 어느 동기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큰 줄거리만을 잡으면 위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目的이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神話素가 첨가되게 된다. 그래서 내용과 무관한 듯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즉 우리들의 세계는 ‘할아버지가 살던 곳은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곳은 아들이 살아가는 이치(조홀대 본, 고산옹 본)’를 말할 목적이 첨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이란 ‘사악한 기가 열두 풍운 조화를 주는 법(안사인 본)’임을 말할 목적이 첨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신화소에 또 다른 화소를 첨가시키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다. 반면, 이야기 내적인 요소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 어떤 인물인가를 목적에 따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락국전>의 경우는 이야기 내부의 요소를 변화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신화소에 또 다른 화소를 첨가시킨 이야기보다는 후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진다.

한락둥이가 집 떠남과 그 과정을 동기와 관련시켜 본다면 바로 ‘아버지 찾기’가 될 것이다. 한락둥이가 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동기는 어머니가 좋고 자신이 좋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별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원강암이나 한락둥이 모두 장자와 같은 존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별의 상황은 사건을 일으키는 단순한 동기와는 달리 아주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풀이의 구연 목적과 관련이 깊다. 자식과의 사별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역시 이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종국에는 이별이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意圖的으로 만들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별과 만남이라는 과정, 즉 아버지와 헤어짐과 만남의 과정이라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아버지 찾기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유리’가 아버지인 주몽과 헤어져 나중에 자식임을 입증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면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 2) 人物

앞서 제시한 사건들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우선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한락둥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 조부모: 임정국부부, 김정국부부 <사건(1)~(6)>

나) 부모 : 사라도령, 원강암이 <사건(7)~(15)>

다) 한락둥이 <사건(16)~(31)>

과 같다. 이는 ‘조부모 - 부모 - 주인공’의 3대를 통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중심적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1) 조부모 중, 외가의 조부모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2) 부모 중, 사라도령보다는 원강암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3) 한락둥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과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 사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조부모들의 ‘소원성취(득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면적 갈등은 일어나고 있으나 인물들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원강암이가 결혼의 주도자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따라 나섬의 주도자이며, 헤어짐(이별)의 주도자이고, 고난을 가져오게 하는 주도자인 동시에, 한락둥이를 떠나 보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타개(개선)하는 주도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원강암이와 새로운 인물인 ‘장자’와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도자의 위치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부딪치면서 다른 인물로 바뀌게 된다. 즉 사건 주도자가 원강암이에서 한락둥이로 전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의 관계도 원강암이와 장자의 갈등에서 한락둥이와 장자의 갈등의 관계로 나타난다.

다)에서는 원강암이에서 한락둥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대치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건과는 달리 죽음과 그 환생이 중심 문제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한락둥이와 장자의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다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난 한락둥이가 공간을 달리 하여 좌정하는 것으로 이 본풀이는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우선 3대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3대인 한락동이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중심적 인물에 위치하는 것은 제3대인 한락동이다. 이러한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시켜나가는 이야기문학의 기본적인 양식으로 보여진다. <단군 신화>에서도 제일 먼저 제시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늘 나라의 환인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아들인 환웅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지만 <단군 신화>의 중심적 인물은 어디까지나 3대에 해당하는 단군이다. 단군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다.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를 연결하여 보면, 해모수와 유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는가 하면, 이들은 어디까지나 중심적 인물인 제3대 고주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는 중심적 인물을 따로 놓고 볼 때는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3대에 걸쳐 나타나는 이야기 문학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는 하나의 신화였지만 전승 집단들의 욕구에 따라 중심적 인물을 달리 설정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족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에서 주로 3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도 하지만, 그 중심적 인물을 누구로 부각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3대가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문학이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다. 그 결과 이러한 요소적 차용이 현대에 와서 염상섭의 <삼대>라는 작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 3) 背景

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적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공본풀이>의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 역시 비일상적임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 이는 무가 자체가 상상력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한락동이 살아가는 세계가 비일상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꽃감관이 존재하여 살아가는 세계 역시 비일상적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더구나 그 비일상성은 한락동이 물

을 건너 서천 꽃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시간은 구연의 과정을 통해서 청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한다. 우선 한락둥이가 물을 건너가는 과정 자체가 원강암이가 죽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로 형성된 것이며 물을 건너는 과정에 한락둥이가 어머니의 혼정을 만나는 것이 비일상적 시간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즉 현실에서는 원강암이가 장자로부터 고문을 받으며 숨져 가는 과정이 바로 또 다른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동시적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진술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상적 시간의 관념으로 볼 때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풀이에 나타나는 시간이 일상적 시간과는 다른 시간임을 드러내 준다.

제의의 비일상적 시간은 청자들을 태초의 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러한 시간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구분하게 만들기 전의 ‘카오스’의 상태로 청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래야 현실의 청자들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원초적인 상태로 확인하게 되고 그 죽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공본풀이>의 공간 또한 비일상계를 전제로 하여 설정된다. 제의적 공간은 현실의 공간과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제의 공간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구별된 전혀 다른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카오스’적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sup>31)</sup>

<이공본풀이>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락둥이와 그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가 살았던 日常的인 세계와 한락둥이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꽃을 구해오는 서천 꽃밭이 포함되어 있는 非日常的인 세계가 그것이다. 한락둥이가 살았던 세계는 제약이 존재하는 세계로서, 장자로부터 징치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리고 가족들간의 이별이 존재할 수도 있는 세계이다. 원강암이가 꽃감관을 살려 가는 남편을 굳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이별을 할 수 없어함이며, 장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서천꽃밭은 이별이 없는 세계이며, 오히려 이별하였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 공존할 수 있는 세계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기능을 가진 꽃들로 가득찬 非日常的인 세계다.

31) 金泰坤(1994), 『韓國 巫俗 研究』, 集文堂. pp.164~197.

……“너명은 이제 죽언 청대왔다 드리쳐부난 광만 슬강ㅎ였져. 저레 나글라 꽃 강 탕 주마.”

사라도령은 한락동일 꽃밭딜 드란 간, 꽃을 탕 주는구나. 광 오를 꽃, 솔오를 꽃, 오장 육부 기릴 꽃, 불불을 꽃, 맬망꽃, 부제될 꽃, 하근 꽃들을 먼 탕 주명, 죽낭 회추리도 흐나 ㅎ영 주는구나.……32)

이와 같은 내용에서 서천 꽃밭은 日常空間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공본 풀이>는 日常的인 세계와 非日常的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공간과 비일상 공간은 서로 水平的 이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한락동이가 呪花를 얻고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원은 서로 다르나 이 두 세계는 垂直的 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水平的 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수직적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군 신화>나, <해모수 신화>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임을 보여준다.

특히 삼차사가 사라도령을 꽃감관으로 데려가기 위해 <느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수직적 이동이 아니라 수평적 이동의 의미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

흐를날은 임정국 떠님애기가 물질레 나가단 보난 서천꽃밭디서 삼체스가 느리고……33)

이는 수직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표현할 때도 <느리다>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이 <느리다>도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서천꽃밭으로 가는 도중 <물>을 건넌 것은 서천꽃밭의 세계가 일상적 세계에서 수평적으로 놓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보자. 우선 이 본풀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원강암이와 한락동이가 존재하는 세계
- 2) 물을 건너가는 과정
- 3) 물을 건넌 서천 꽃밭의 세계

작품 속에 존재하는 內的 世界는 場所的 空間, 地理的 空間, 觀念的 空間으로 나누어

32)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苑. p.81.

33) 상계서. p.72.



볼 수 있겠다.<sup>34)</sup> 장소적 공간은 가장 구체적인 차원으로서의 공간이며, 지리적 공간은 대개 천상계, 지하계, 지상계, 등 수직적, 수평적 위치로 나눈 공간이며, 관념적 공간은 가장 추상적인 차원으로서 관념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를 관념적 공간으로서 살펴 본다면, 앞의 내용에서 보듯이 <물>을 매개로 하여 나누어진 일상적 공간과 비일상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관념적 시공을 카오스(chaos)의 세계와 코스모스(cosmos)의 세계, 그리고 카오모스(chaomos)의 세계로 나누어 본다면 <물>을 중심으로 하여 원강암이와 한락둥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코스모스(cosmos)의 세계로 볼 수 있고, 서천 꽃밭은 카오스(chaos)의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모스(cosmos)와 카오스(chaos)의 세계를 연결하는 <물>건넌의 과정은 카오모스(chaomos)의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코스모스(cosmos)인 일상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세계다. 원강암이가 죽어 청대왓에 묻혀 버리는 세계다. 이는 靈과 肉이 분리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을 건너 존재하는 세계는 靈과 肉이 하나로 融合되어 나타나는 세계다. 다시 말하면 물을 매개공간으로 하여 일상의 세계와 비일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데 이는 서로 다른 세계다. 그러기 때문에 한락둥이가 원강암이를 생명꽃으로 살려내어도 중국에 가서는 일상계에 머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일상의 세계는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세계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그래서 다시 살아난 존재는 일상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靈肉이 분리된 경험을 한 존재가 다시 통합된다면 비일상계의 세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단군 신화>에서 카오스(chaos)의 존재인 환웅이 일상계에 존재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러므로 <이공본풀이>는 어머니를 살려낸 한락둥이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세계로 옮겨 그곳에서 좌정을 하고 일상의 세계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인물이 달라지게 되면서 다시 확대되어 나타난다. 특히 새로운 인물인 한락둥이는 자식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원강암이를 대신하여 공간을 이동하는 역을 담당하는 인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평범한 인물인 한락둥이가 차원이 다른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것을 상징한 그 이면에는 두 가지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는 공간이동에

34) 김창진(1984), "관념적 시공의 존재 양상 및 성격 고찰(1)", 『미원 우인섭선생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p.288.

관한 관념이다. 이는 <단군 신화>나 <해모수 신화>, <천지왕본풀이> 등에서 보는 공간이동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단군 신화>나 <해모수 신화>, 그리고 <천지왕본풀이>의 공간이동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공간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天의 세계와 地의 세계를 상정하여 놓고 인간이 사는 地의 세계는 天의 질서를 그대로 본받으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의 공간이동의 관념은 수직적인 공간이동과는 다른 수평적 공간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 자체에 대한 관념이다. 天과 地의 수직적 공간에 대한 관념은 우선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天의 세계를 地의 세계와 대응을 이루는 공간으로 상정한 결과이며, 天의 세계를 모델로 삼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수평적 공간에 대한 관념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보아진다.

결국 <이공본풀이>는 그 전개되는 사건의 내용은 구연되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연되는 시·공간을 신성시하여 비일상계임을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이 맞물려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構造와 祭儀

앞에서 살핀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공본풀이>라는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構造란 이야기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형상을 가리킨다. 곧 전체 이야기 안에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 내적인 관계가 構造인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일정한 등장인물에 의해 사건이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시간적 계기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며, 삶과 죽음으로 대별되는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공본풀이>에 대한 構造를 밝힘에 있어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순차적 構造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순차적 단락의 構造는 모두 對立

的 要素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對立的 構造는 상황의 부정과 이러한 부정에 대한 부정을 펴면서 점진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構造<sup>35)</sup>로, 혹은 ‘고난 - 해결 시도 - 해결’<sup>36)</sup>로 되어 있음을 밝혀 왔다.

그러나 서사단락의 構造는 대립적인 관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정과 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한 발전이거나 고난과 고난에 대한 시도, 그리고 그 결과 해결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동일한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사건 위주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인물의 행위(한락둥이와 원강암이, 사라도령, 그리고 김진국과 임진국)를 동일한 관계로 파악한 것은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필자는 본풀이가 신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構造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주동인물은 한락둥이로 보고 새로운 인물들(조부, 부모)은 주동인물에 대한 대리물로 보아 構造를 달리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조흔대 본<sup>37)</sup>을 중심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다른 본들의 내용을 첨가시키기로 한다.

<이공본풀이>가 이수자의 지적처럼 ‘생사관장, 죽음과 재생의 원리’<sup>38)</sup>라고 본다면 <이공본풀이>의 내용은 결국 이공의 인물행적 또는 능력이 중심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이공인 한락둥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건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경우, 후반(사건 17)에 와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 한락둥이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특이한 행적을 보여준 적도 없다. 이러한 점이 <이공본풀이>의 특성일 수도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갈등 관계의 인물들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장자와 원강암이다.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이며, 등장인물 사이의 대립, 또는 인물과 운명 환경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그런데 원강암이는 장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이므로 장자와 원강암이의 갈등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결말을 살펴보더라도 원강

---

35) 윤찬주(1991), 전계서. p.15.

36) 강정식(1988), 전계서 pp.274~279. 참조

37) 이 연구에서는 주로 ‘조흔대 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명칭이 이 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흔대 본’에 나타난 명칭으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38) 이수자(1989), 전계서. p.117.

39) 상계서. p.170.

암이가 ‘이공’이 되지 못하므로 갈등의 주체를 이공에다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자와 한락둥이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한락둥이가 작품의 내용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원강암이의 앞날에 대한 예견과 현실대응의 방법은 곧바로 한락둥이의 앞날에 대한 예견과 현실대응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장자에 대한 원강암이의 대응은 한락둥이가 아버지를 찾아 나설 때, 천리통이와 만리통이로 대신 드러나는 장자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다. 한락둥이는 미리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여 범벅(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락둥이와 원강암이는 다른 인물이 아닌 동일 인물로, 주인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락둥이와 장자가 대결을 이루고 있는 構造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자아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構造의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상대의 우위를 허용하지 않는 가치부정의 상태이며, 그리고 그 가치부정을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지향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자와 한락둥이의 관계는 극단적인 對立의 關係가 아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우선 한락둥이의 탄생의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락둥이의 탄생부분은 다른 신화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탄생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神異한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지만 한락둥이의 탄생은 소개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한락둥이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바로 아버지의 상실이다. 아버지의 상실은 한 개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의 결여상태를 말한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가 종이라는 신분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주체성(자립성)의 상실이다. 한 개체가 이미 결여된 상황에서 또다른 결여의 상황이 겹친 것은 고난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장자의 원강암이에 대한 몸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모든 면에서 장자는 한락둥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장자의 힘은 집요하게 한락둥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강암이가 미색을 지닌 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들여 사들인 하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원강암이가 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의 언급

과 관련하여 장자 자신이 원강암이를 직접 보고 사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째딸과 둘째딸의 거절의 과정이 있었고, 막내딸의 허락으로(그것도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종으로 사들인다.

결국 한락둥이가 태어나는 과정과 원강암이가 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강암이의 힘이 처절하리만큼 약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반면 장자의 힘은 강할대로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락둥이의 성장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장자의 힘이 가장 강한 시점에서 한락둥이가 어머니를 졸라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되고 그 결과 그 거대한 장자의 힘에 도전하게 된다. 즉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게 된다. 그래야만 저승 꽃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저승 꽃밭으로 가는 능력을 형성케 한다. 문제는 한락둥이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動因은 장자의 힘이 그를 가장 강력하게 누르다 약간의 빈틈이 있어 보일 때 시도된다는 점이고, 이의 근본적 뒷받침은 장자의 셋째딸의 도움이다.

…… “야야, 콩은 어디 있느니?”

“어머님은 간세로구나, 장제칩이 콩각막을 털영 봄서, 콩 혼섬이 엇입네까? 꽃각막을 털영보민 꽃 혼섬 엇입네까? 녹디각막 털영 보민 녹디 혼섬 엇입네까? 조강막을 털영 보민 조 혼섬 엇입네까? 나록각막 털영 보민 나록 혼섬 엇입네까? 산디각막 털영 보민 산디 혼섬 엇입네까? 모뎀각막 털영 보민 모뎀 혼섬 엇입네까? ……40)

한락둥이의 탈출 구원자 및 수단(방법)은 모두 장자의 집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한락둥이의 成熟과 分離의 시도는 모두 장자의 세력이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한락둥이가 새로운 시련의 극복이나 도움은 모두 장자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은 한락둥이의 분리는 결국 장자의 힘에 그 원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락둥이의 새로운 세력과 힘은 결국 장자의 힘과 세력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물건념의 과정이 構造적으로 개입되어 있는가? 그것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때 하늘에서 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흙이슬이 솟아나, 서로 함수되어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천지왕본풀이>

---

40) 진성기(1991), 전계서. p.90.

여기에서의 물은 바로 창조와 질서의 세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물의 건넌의 과정은 아울러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물건님이 <이공본풀이>에 構造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은 세계 전체의 근원이며 잠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로서 일체의 형태가 발생하는 원초의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도 선행하고 어떤 창조도 가능하게 한다.<sup>41)</sup> 그런데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나는 물은 단순히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어머니가 고문을 받으면서 흘리는 ‘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 어머니의 죽음 속에서 자아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다. 한락동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죽음이다. 환언하면 한락동이가 아버지가 있는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죽는 그 자체이다.

그런데 왜 한락동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제의와 관련시켜 볼 때 실제로 현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아직 이승을 떠나 다른 세계(저승)로 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계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천 꽃밭이라는 곳은 모든 형태가 조화를 갖추고 있는 곳이며 인간은 그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건님의 과정이 있는 연후에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서천 꽃밭에서 생명꽃을 가져와야만 현실에서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서천 꽃밭을 이렇게 설정한 데에는 본풀이가 굶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계건 내 독막업 우티 올라 앓이라.”

한락동인 사라도령 독막업에 올라앗안 똥오줌을 싸는 시늉, 벨벨 조세를 문 흥연 식상을 받은 후젠,……<sup>42)</sup>

한락동이가 짧은 시간 동안에 부모가 키워내는 과정을 어리광부리는 모습을 통하여 재연해 보인 것은 父子間의 만남의 모습이며 기쁨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죽은 자식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굶을 의뢰한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식

41) 왕빈(1980), 전계서. pp.81~82. 참조

42) 진성기(1991), 전계서. p.80.

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도 인간계처럼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지닌 곳이며 그 곳에서도 부자간 혹은 모자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을 떠나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러니 이승에서의 이별을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살아 있는 자에게 구체화시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음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경혼 줄 알아시민 그놈으 가마귀 돌췌기로 마쳐불겔.”  
“체스님을 정 안흔다.”  
“올 때 물이 느 애개기에 뜬 제, 어멍흔 예즈가 앓안 스답을 한햄서냐?”  
“예, 어멍흔 예즈가 스답을 흐염십디다.” “거 너멍 혼정이다.”  
“혼정이민 무사 말ㄴ라도 대답 안해줍네까.”  
“죽영 맹왕으로 들어스민 혼정으로 대답 안흔다.”……43)

이 부분의 대화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죽은 자는 어떤 과정으로 저승으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체스(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며 혼정(영혼)이 되어 저승으로 가면 저승은 이승과는 달리 말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 저 말 꺾단 원강택이광 사라도령은 갈라사게 되는구나. 원강택이가 말을  
흡을,  
“이땃법은 어땃사 흐는디, 우리땃법은 종광 한집이 풀양 갈라살 적인 식스상을 출려줍  
네다.”  
“어서 걸랑 기영 흐라.”  
열두가지 구애반상 아홉가지 매물적 안상녹 토용칠첩반상에 출런 사라도령신데테 들  
러놓고, 원강택이신디렌 콜락박새기에 모밀 칸 홍합조갱이로 거려먹으렌 주난 원강택인  
밥먹을 생각은 엇고 눈물이 흥애지듯 비새울 듯 울단 말을 흡을  
“이땃법은 어땃사 흐는디 우리땃법은 한집이 종을 풀양 갈라사쟁 흐민 혼상에 밥을 출  
령 맞앗앙 먹읍네다.”  
“계건 느네땃 범대로 흐라.”

이젠 원강택인 사라도령광 곶이 간 맞앗안 밥을 먹젠 흐난 사라도령도 기가 맥혀 밥  
을 먹을 수가 엇어. 연주당에 흥애지듯 반춧눈에 비가 오듯 눈물이 흘려가니 밥상을 눈  
물로 밋밋 넘어간다. 사라도령은 밥을 먹을 수가 엇언, 돈도 꺾도 아니흐곡 빈 속에 그

---

43) 상계서. p.81.

냥 흑흑게 나간 원강택이가 말을 홑을  
“이뎡뎡은 어뎡사 흑는디, 우리뎡뎡은 종과 한집이 갈라상 나갈 뎡 뎡 정으로 나갈 잘  
갑생 치송을 홑네다.”…… 44)

이별의 장면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고 미리 이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한 방편이다. 다시 말하면 生者와 死者와의 살아 있는 동안의 이별의 장면을 떠올리고 살아 있는 자는 저승으로 떠나는 자에 대한 이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림으로 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을 내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이러한 장면은 후에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생김을 암시하기 위한 수법이며 한락동이 어머니의 혼정을 보고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의 구별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뎡뎡’을 강조함이고 이는 결국 다른 세계의 법과는 다른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의 죽음이 뒤따른 다음에 바로 갈등이 해결된다. 장자와의 갈등해소는 장자와 동일한 힘을 얻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동질의 힘이라면 한락동이의 힘의 약화될 때 다시 장자의 힘이 솟아오를 것이며, 한락동이의 세력이 최고조로 강하면 약화된 듯한 장자의 힘이 다시 뻗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갈등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은 본원적인 힘을 소유해야 한다.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는 힘이어야 한다. 이 본원적인 힘이 꽃이며, 장자의 힘과는 다른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꽃이다. 그래야만 이미 죽어버린 어머니를 소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이공본풀이>의 핵심이 놓여 있다.

꽃이라는 제3의 요소의 등장은 본풀이에 참여하는 청중들의 의식을 되돌려 놓는다. 죽음관장신은 인간을 죽일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다. 다만 죽음은 또 다른 세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야만 청중들은 신을 원망하거나 그 신 자체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의 꽃은 관념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객관적 사물에 불과하다. 얻을 수도 있고 얻어다 버릴 수도 있다. 훔쳐올 수도 있다. 남이 훔쳐갈 수도 있다. 생명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존재의 근원은 또 다른 세계에다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의와 관련시켜 볼 때, 굿의 의뢰자가 죽은 이의 靈魂이 혹은 생명이 사라져

---

44) 상계서. p.87.



소멸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서글플 것인가. 그러나 생명은 또 다른 곳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 단지 죽은 생명이 그곳으로 갔는가에 관한 의문만이 남는다.

곳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것의 확인과정이다. 郷歌의 하나인 <祭亡妹歌>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독자들의 공감을 획득하고 있다면 그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 때문에 떨어져 생명을 잃은 나뭇잎은 떨어진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다. 만일 남아 있게 된다면 그리 죽음을 서글퍼 할 이유가 감소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 죽음을 재촉한 바람은 다시 죽은 생명을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날려버리고 만다. 그러니 죽음이 서글퍼지는 것이다. 죽음의 세계는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서사적 요소들이 제의적 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적 구성요소들을 구조적인 조직을 통하여 본풀이의 의미를 형상화해 내고 있다. 한락둥이와 장자 사이의 葛藤은 서로 對立的이기보다는 相互 補完的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의 서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부정’이나 ‘고난-해결시도-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한락둥이의 성장 과정과 신으로서의 능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곳이라는 상황에 따른 청자들의 욕구와 제의 의식이 개입되면서 죽음의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하여 보여 준다고 하겠다.

## IV.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文學意識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이공본풀이의 특성과 구조 등에 나타난 의식이 문학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문학의식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필자는 <이공본풀이>는 神의 來歷이면서 神의 성장과정으로 파악해 왔다. 그것은 본풀이는 신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의 양식이 문학 속에 담겨진 기본의식이라면 본풀이 구성원리나 신의 설정 이유, 타계 설정도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의식, 삶과 죽음에 대한 문학적 의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 본받음의 論理

제주의 敍事巫歌는 기본적으로 열두 개의 일반신본풀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sup>45)</sup> 이는 <이공본풀이>도 <천지왕본풀이>나 여타의 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표 4>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드러났듯이, 대상신을 어떤 신으로 간주했는가는 본풀이의 내용 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공본풀이>를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본받음’의 論理<sup>46)</sup>라고 본다. 이는 본풀이 진행과정상 언급되는 내용이나 독립된 본풀이의 최종 과정에 나타나는 본풀이와 무관한 듯한 덧붙임<sup>47)</sup>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본받음’이란 ‘본에 대한 풀이’라는 본풀이의 개념 그 자체 속에 내재해 있다. 무당은

---

45) 이수자(1989), 전계서, p.15.

46) 본받음의 논리는 서사 진행의 원리다. 본은 ‘본을 받다’의 의미로 본풀이에서 구연되는 타계 자체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바로 인간계에 이어짐을 나타낸다. 이는 제주 서사무가의 기본 논리라고 본다. 이는 필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47) 현용준은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고대 소설의 구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玄容駿(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p.57.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풀이의 구성이 우연적 구성이거나 내용과 무관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요소가 본풀이 구연의 의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에 관한 풀이’와 아울러 ‘본에 관한 행위’를 재현하도록 한다. 재현이란 우선 본풀이 구연 장소를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해 놓는다는가, 신에 관한 내용을 풀이한다는가, 신의 행위를 다시 인간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他界에서 일어나는 他物(神)에 관한 내용을 재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즉 인간의 차원에서는 ‘본받음’의 논리가 개재되어 있다. 본풀이 내용 중간 중간이나 말미에다 인간계의 법을 마련한 근원을 덧붙이는 자체가 ‘본뜸’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본받음’이다.

본받음의 내용이 본풀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濟州 巫歌 중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제시한다.

① “이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 모른 용상이로고나!”

용상 옆을 지나가난 용상 웬뿔 무지러지여, 지구성데레 하전(下轉) 흐는구나. 그 때 법으로 우리나라님도 웬뿔 웃인 용상타기 마련한다. <천지왕본풀이>

② “아이고 이 일을 어떡흐민 좋으리, 양반의 집의 스당공스 났고나. 궁안에도 브름이 들었고나.”

그 때 내은 법으로 우리 인간덜 집의 무슨 일이 당흐민 ‘궁안에 브름이 들었고나.’흐는 말이 있습니다. <초공본풀이>

③ 견지오름 지나고 대정고을 들어사니 조심드리가 서,  
“상전님아 상전님아, 조심조심 지나웁소서.”

그때에 내은 법으로 대정고을 조심드리 있습니다. <초공본풀이>

④ 웨하르방 땅 임정국 땅일 들어가난 웨하르바님이 베석(拜席)자릴 내여주난, 그 때 내은 법으로 신의성방(神의 刑房) 곳을 가민 헛자이 신자리(神席) 베석(拜席)자릴 주는 법이웨다. <초공본풀이>

⑤ “생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종이에 감은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웨옵니까?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줘서.”

원님이

“올타. 나가 실수웨였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 썬 내여주난, 그 때 내은 법으로 우리 인간도 사름 죽어 멩전법(銘旌法) 서련허였수다. <차사본풀이>

⑥ “입성(衣服)은 어느제 출려 놓았느냐?”

“뵈써 영 흘 줄 알고 지어 났수다.”

그 때 내여 논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인간 사름 죽기 전의 살아신 때 저승입성 호상을  
출려 놓는 법입네다. <차사본풀이>

마찬가지로 <이공본풀이>의 본받음은 마지막 부분에 신의 좌정과 함께 나타나 있다.

⑦ 그 자리에 장제깃 죽은 딸아기 죽여두고 어명국을 인도허연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그때에 어머님 죽연 청대왔디 흑대왔디 청새왔디 데껴난 법으로 청대ㄴ든 청스룩 흑대  
ㄴ든 흑스룩 열두 풍문주는 법이웨다.

이들을 살펴보면 ① 나라의 법도, ② 인간계의 변고, ③ 마을 다리의 생성, ④ 의례  
시의 행위, ⑤ 죽음으로의 이행, ⑥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⑦ 죽음의 원인 등 인간계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풀이의 구연을 통하여 청자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문현상과 자연현상  
에 관련된 유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청자들에게 무가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신의 행위 등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왜 본풀이 내용과 무관한 내용들이 본풀이의 중간 중간이나  
끝 부분에 드러나는가에 주목해서 구연자들이 의도적으로 구성해 놓은 부분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풀이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본다면 구연자들이 본풀이를 문  
학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본  
풀이의 구연 동기나 목적을 먼저 상정해 놓고 그 의도와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 요소가 본풀이의 내용 전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청  
자들에게 구연의 의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타계에서 어떤 일이 먼저 생  
겨났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날 것이라는 본풀이의  
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이는 신을 칭해 놓고 신의 행적을 밝힌 후에 인간의 소  
망을 말함으로써 신이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본풀이의 특성과  
도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의 ① ~ ⑦의 ‘본받음’의 논리는 단순히 사건 構造에 덧붙  
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풀이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받음은 재현을 전제로 한다. 이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나타난 <龜旨歌

>와 그 배경설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48)</sup> <三國遺事>에 기록된 자료들이 본래 巫歌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가지만 <삼국유사>에 기록된 국조 신화는 본래 巫俗神話로 형성되어 국가적 제전에서 전승되다가, 후대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된 자료라고 본다면,<sup>49)</sup>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지봉에 …… 사람들(衆庶 2,3백)이 모여(곳의 성립과정) ‘하늘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여 나를 보내는 것이니 구지가를 부르며 춤추라’ 한 결과 하늘에서 공함이 내려와 왕이 탄생하였다(실현).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재현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중에 또 수로왕을 사모해서 하는 놀이가 있다. 매년 7월 29일엔 이 지방 사람들과 서리·군졸들이 乘帖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논다. 이들은 동서쪽으로 서로 눈짓을 하면 건장한 人夫들은 좌우로 나뉘어서 望山島에서 말발굽을 급히 육지를 향해 달리고 뱃머리를 등등 띄워 물 위로 서로 밀면서 북쪽 古浦를 향해서 달리니, 이것은 대개 옛날에 留天干과 神鬼干 등이 王后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首露王에게 아뢰던 옛 자취이다.<sup>50)</sup>

지방의 백성들과 서리, 군졸들이 수로왕을 모시는 놀이를 했다는 것은 신화적 내용을 현실에다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받음은 대상을 전제로 한다.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닌 신이다. 신을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神의 世界는 인간의 세계와는 달리 調和의 世界로 본 결과다.

본받음은 주체를 전제로 한다. 그 주체는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는 巫歌가 인간계의 소망과 이상을 투영한 결과다.

본받음은 의식의 문제이며 가치의 문제다. 본받음은 주체를 대상보다 강조한다. 왜냐하면 본받음은 價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價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화의 본래적 의의는 인간에게 객관적 세계상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생존하는 인간의 自己理解方式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신화는 이미지나 가공적 이야기로 꾸며진 설명이 아니고 태초에 일어난

48) 一然, 三國遺事, 卷第二, 駕洛國記 참조.

49) 서대석(1994), “한국무가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p.176.

50) 一然, 전계서, 가락국기

51) 이봉린(1981), “삼국유사의 상징성 연구” 『학술연구보고서』 6, 한국학술진흥재단. 81. p.9.

일들로서 현재 제의 행위를 원인지어 그것으로 인간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모든 형식의 행위와 사상을 설정하는 일들을 서술한 전승설화로 볼 때,<sup>52)</sup> 濟州巫歌의 기본적인 論理는 ‘본받음’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본받음’의 논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욱은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sup>53)</sup>에서 제주문화를 도서문화로 규정하고, 도서문화에 나타나는 기본 사고는 유전학에서 적용되는 조상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상의 원리는 공통의 혈연집단에 의한 조상을 중시하는 사고다. 그러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인간계의 전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과 정서를 어떤 추상적인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sup>54)</sup>

이상을 통해서 <이공본풀이>는 물론 濟州敍事巫歌의 기본논리가 ‘본받음’의 論理임을 밝혔다. ‘본받음’은 神의 世界를 典範으로 해서 인간계에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價値體系이다. 이러한 것은 <三國遺事> 가락국기에도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價値체계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며 이러한 것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2. 體驗과 克服으로서 神

祭儀란 인간의 삶과 관련성이 있는 기능을 가진 대상신을 설정하고, 그 대상신에게 제향을 베풀면서, 인간 삶의 豊饒와 幸福과 安全을 기원하는 儀式이므로, 이들 대상신의 본풀이에는 반드시 인간이 제향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대상신들의 기능이 나타나 있기 마련이다.<sup>55)</sup> 따라서 본풀이에 나타나는 神의 性格은 대상신이 가지는 機能的인 側面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濟州巫歌를 통해서 나타나는 神은 1만 8천신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모

---

52) 상계서. p.9.

53) 이태욱(1989), “제주도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제주도연구회.

참조

54) 에른스트 카시러, 정태진 역(1981), 『인간과 문화』, 탐구당. p.34.

55) 이수자(1989), 전계서. p.21.

두에 어떤 신성함을 느끼고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濟州敍事巫歌를 살펴보게 되면 巫歌가 구송되는 空間은 일상과는 다른 신성한 공간이며, 時間構造도 일상적인 것과는 상이한 비현실적인 것이다. 즉 현실의 질서가 자리 잡는 대신 비현실적인 카오스의 질서가 자리 잡는 것이 巫歌가 구송되는 窠판이다. 窠판에서는 신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데 窠판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신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窠판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관계는 바로 두 번째의 神과 人間의 관계이다. 濟州 巫歌가 구연되는 窠판도 예외일 수 없다. 위대한 존재인 신이 행한 일은 되풀이되어 구송되며 찬양되는 것이다. 유한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에서 영원 존재인 신으로 존재를 바꾸어간 여러 대상들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되풀이 구송된다. 또한 신의 도움을 받거나 신과 만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현실과는 다른 비현실계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역시 되풀이 구송되어 인간의 염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巫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神’인데, 그 신은 인간의 모든 기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 存在로 인간에게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sup>56)</sup>

그렇다면 神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神에 관한 人間들의 思惟方式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본풀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본풀이 혹은 신화는 인간이 신을 향한 기원이라고 하며, 또 그러한 신은 인간의 염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파악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어째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에게 기원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건의 構造的인 파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공본풀이>가 불도맞이에서 불려지고 소아사령 窠에서 행해진다는 전제를 두고 논의한다면 첫째, 이 본풀이의 대상신은 청자들의 소원과 동일한 죽음을 체험해 본 자이다. 원강암이가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자이지만, 사라도령이 원강암이와 이별하고 서천 꽃밭의 꽃감관으로 가는 것 또한 다른 의미의 죽음이다. 그러니 한락둥이가 현실의 세계를 떠나 서천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간접적인 죽음의 體驗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6) 홍태한(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119.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죽음을 體驗할 수가 없다. 죽은 자식을 가진 자(부모)는 죽음을 體驗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비현실적인 존재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죽음에 대한 體驗을 갖기라는 현장을 통해서 공유하게 된다. 죽어보지도 않은 자가 어찌 죽은 자와 관련된 일을 해결해 낼 수 있겠는가? 죽음을 體驗한자가 결국 죽음을 管掌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음 그 자체만을 體驗하는 것으로서는 신의 能力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 죽음을 다시 克服하여야 한다. 즉 다시 살아남으로(혹은 살려냄) 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자만이 죽음을 관장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즉,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죽음을 生으로 환생시킬 수 있는 경험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설정된 것이 꽃이며 그 꽃의 사용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보여준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인간으로 남아 있게 되느냐 아니면 인간과 다른 존재가 되느냐하는 것을 결정한다.

體驗이 곧 能力을 획득한다는 의미는 결국 청자의 인식 상에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죽음의 체험과 죽음을 관장하는 능력의 소유란 결국 실재하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을 의뢰한 자나 그 곳에 동참하는 자들은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인식상의 체험 공유이다. 청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죽음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이 판단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價値觀이며 世界觀인 동시에 우리민족의 가치체계인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인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한락동이가 神으로 좌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평범한 인물이 한락동이가 신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죽음을 體驗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 죽음을 다시 克服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굿판을 의뢰한 자나 동참한 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인데 이것은 敍事巫歌에 나타난 가치체계이며 그러한 인식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다.



### 3. 他界설정을 통한 現實 重視

인간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생각한다. 인간은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관계에 따라 사회적 관념 및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관념 속에 세우는 超自然的인 세계는 결국 현실 세계의 반영, 즉 인간이 이 지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맺는 社會的 關係를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超自然的인 세계는 언제나 사회의 基本構造를 유지하는 데 봉사한다.<sup>57)</sup> 마치 부족 종교는 부족을 보호하고 부족적 관계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공본풀이>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에 대한 관념은 고대인의 삶의 방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他界에 관한 고대인의 기본적인 思考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 <천지왕본풀이>를 토대로 살펴해보도록 하자.

<천지왕본풀이>에는 인간의 세계가 부정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설정된 이유는 ‘소별왕’이 인간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별왕’이 차지한 것이 부정한 것인가? 그것은 ‘소별왕’이 인간의 세계를 차지한 방법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원래가 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신에게 있음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제의를 행하는 이유는 그 부정한 세계에 사는 인간의 삶에 부정한 일이 생겼기에 그 원인 제공자인 신이 그 일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思考에서 비롯된다. 소위 結者解之의 論理다.

이러한 思考는 본풀이 내용 자체에서 드러난다. 꽃키우기 시합을 통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이나 속임수로 이승을 잃어버린 ‘대별왕’이 그 속임수를 인정한 결과로 나타난다. 즉 ‘대별왕’은 ‘소별왕’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여 이승을 차지하게 허락하고, 다만 인간의 세계는 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세계도 부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원래가 人間의 世界가 부정한 곳이 아니라 부정한 신이 인간을 차지하

---

57) M. 폰터스, 이보임 역(1984), 『인식론』, 동녘. pp.81~82.

고 다스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 부정적인 면(살인, 강도, 강간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는 향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兜率歌>의 배경 설화를 통하여 살펴보면 하늘의 이상정조는 곧 인간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늘에 해가 돌이거나 달이 돌이면 인간의 세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이 타 죽거나 추워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계의 삶의 양상은 하늘(타계)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결과다.

현실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이 타계를 전범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秩序化와 組織化를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연한 질서를 획득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이 현실의 세계는 질서와 조직화된 세계로 탄생하게 된다. 특히 타계의 삶의 내용이나 질이 일정한 질서로 이 세상으로 전이되어 현세의 삶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思考의 表出이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의 세계를 보여준다. 즉 저승에 관한 관념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물론 제주 巫歌 중 저승에 관한 관념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차사본풀이>다. 그러나 곳의 행해지는 배경과 관련하여 보면 <이공본풀이>도 저승에 관한 관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겠다. 이승처럼 저승에도 일정한 질서를 갖춘 세계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저승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이승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저승에도 그 나름의 법도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죽은 자가 삶을 누리는 곳이다.

우선 저승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저승은 이승에서 거리가 있는 어떤 곳에 존재한다. 그 곳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는 물을 건넌을 통해서 드러난다. 물을 건넌은 다른 세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저승은 바로 현실의 삶과 대등한 곳에 위치한다. 저승이 이승과 水平的 關係에 있는 곳에 존재함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주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함은 비현실성의 價値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理想으로서 價値를 지니는 것이지 現實을 부정하여 非現實의 價値를 現實의 價値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이공본풀이>가 저승의 세계를 설정하여 저승의 모습을 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승의 세계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대상을 알게 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현실의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공본풀이>의 저승 설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4. 삶과 죽음의 超越

<이공본풀이>에서 죽음을 體驗하는 자는 원강암이다. 그 죽음은 장자의 소유욕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의 대상이 여성이므로 이는 여성의 수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sup>58)</sup>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天神, 地神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 중 地神系가 수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地神系의 수난은 ‘유화’와 ‘당금애기’, ‘바리공주’ 등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수난으로 본다.<sup>59)</sup>

원강암이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있고 반면 남편인 사라도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이 둘의 결합은 부와 가난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부와 가난의 대립적 관계로 제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원강암이의 죽음의 지니는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다. 죽이는 자는 장자뿐만 아니라 ‘생불꽃’을 얻고 돌아온 한락둥이도 장자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락둥이가 장자의 족속들을 죽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보복의 차원<sup>60)</sup>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보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한락둥이의 신적 능력이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죽음관장신으로 신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이 직접 죽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58) 원강암이의 수난과 죽음의 과정을 제주 여성의 수난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식(1988), 전계서. pp.286~290. 참조

59) 박경신(1986), "제주도 무속 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호. 국어국문학회, p.296.

60) 현용준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현용준(1992), 전계서. p.13. 참조

그렇지만 이 죽음의 이면에는 또 다른 능력은 오직 버림(세속적 능력이나 욕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思考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일상계에서 자신의 인간적 삶, 世俗的 慾望을 포기해야 만 죽음을 관장하는 能力을 획득할 수 있다는 意味이다. 世俗的 慾望의 포기가 있는 연후에야 삶과 죽음을 통달하는, 초월적 能力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락동이 장자를 죽인 후에야 어머니를 살려 내는 그의 能力을 보여 주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완벽한 탄생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순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죽음만이 영원한 연대의식(즉, 현실적인 것과의 연관)을 파괴하고 모든 외적 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現在的 自我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自我를 완성하는 유일한 가능성, 그리고 보다 완전한 자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1)</sup>

이는 주인공의 삶과 연관시켜 보면 결국 生과 死는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生을 이루기 위해서는 死를 전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초래하기 전까지는 한락동이나 원강암이는 앞일을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강암이의 죽음을 초래 한 후에는 앞일이 예견 가능하며(어머니에게 범벅을 마련함은 앞일에 대한 예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락동이 장자에 의해 죽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공은 능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죽음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한락동이는 신적 能力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되살려 놓는 것은 다름 아닌 꽃이다. 꽃은 죽음의 해독제로서 '약초'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인에게 소금은 사람들의 마법이나 요술에 걸렸을 경우 도움을 구하게 되는 동료였듯이<sup>62)</sup> 꽃은 우리 민족에게는 죽음을 구원해주는 동료였다.

---

61) 이와 관련하여 보면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삼천선비들의 갈등의 해결과정도 이해될만하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갈등의 해결은 오직 스스로의 변신, 자기개혁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팔자를 그르쳐야”하는 것이다. 오직 스스로의 지상의 세속적 권위를 버릴 때, 그는 죽음의 세계에 윤회된 어미를 살려 낼 수 있다.

이부영(1989), “濟州巫俗의 몇 가지 特徵과 分析心理學的 試考”,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제주도연구회. p.43.

62) H.프랑크포르트 외, 이성기 역(1996), 『고대 인간의 지적 모험』, 태원사. p.163.

불도맞이에서 생명부여신인 <삼승할망본풀이>와 죽음관장신인 <이공본풀이>가 동시에 불려지는 이유는 결국 삶과 죽음을 다른 두 개의 세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隨書>의 <東夷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의 여정으로 송별하기 위하여 한없이 울면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환송한다는 기록<sup>63)</sup>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죽음과 삶을 양극화하여 구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윤공제가 죽었을 때 신라에서 악인 80명을 보내어 고취가무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원강암이가 남편과 이별할 때는 슬피 운다. 이별을 할 수 없어함이다. 그 이별이란 다름 아닌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락둥이와 이별할 때는 그러함이 없다. 한락둥이와 이별하는 것도 또한 죽음이다. 이는 원강암이의 남편과 한락둥이를 동일 인물로 볼 경우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즉 죽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다. 그 속에는 생과 사를 초월하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직 굿이라는 상황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生과 死에 대한 인식을 속에는 어떠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價値를 同等하게 두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하는 것과 價値를 同等하게 두는 것과는 다르다. 이 神話는 죽음을 인정하나 現實에 價値를 우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본풀이가 구연되는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산 자, 살아 있는 現實의 世界에 存在를 두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연되기 때문이다. 현실의 삶을 누리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친숙한 세계에는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 이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가지 가능한 해결 중의 하나로 귀착된다. 먼저 그는 상상력의 산물의 희생자가 되며 세계의 법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또 하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현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상성은 자연적인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이 비자연적인 사건을 접할 때 겪는 망설임hesitation과 같은 것이다. 자연적/비자연적의 대립을 통해 갈등을 겪는 것

63) 送死歌舞, 初終哭泣, 葬則鼓無作以送之. 최민홍(1979), "한의 철학의 인식론", 「한국 철학 연구」 제 9집, 해동철학회. p.95.에서 재인용.

그리고 만농선생의 사진<영장밭디>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춤을 추며 死者를 보내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과 사를 분리하여 서로 다름으로 보지 않는다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p.90.

은 텍스트 안의 인물 뿐 아니라 바로 독자 자신이기도 하다. 환상적인 문학 안에서 독자는 인물들의 세계에 참여한다.<sup>64)</sup>

꿈이 현실과 대립될 때 거기에는 꿈과 현실 사이에 망설임이 있다. 즉 환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환상적인 요소는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생과 사를 대등적인 개념으로 보는 데는 결국 삶과 죽음사이에 망설임이 없는 것이다. 즉 환상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한 부분으로 청자들은 인식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濟州의 敍事巫歌는 한국인의 고유한 價値體系를 잘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공본풀이>는 神의 세계가 현실에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본받음의 논리'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공'이 神으로 좌정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다시 그 죽음을 극복하는 신적 能力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저승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본적 계기가 되는데, 이는 저승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思考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려는 의식, 즉 삶과 죽음사이의 망설임을 없애기 위한 意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4) 宋孝燮(1984), “李朝小說의 幻想性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 『韓國言語文學』第23輯, 韓國言語文學會. p.357.

## V. 敍事巫歌 指導方向

지금까지 III, IV장을 통해서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濟州의 敍事巫歌의 문학교과 위상과 문학의식을 살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이공본풀이>는 敍事的 側面에서 原型性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문학에서 意識의 原型性을 유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巫歌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65)</sup>

巫歌의 교육철학적 의미는 그것이 가르쳐 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巫歌의 내용을 지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서는 학교의 교과 내용에서와 같은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巫歌의 교육철학적 의미는 그것이 가르쳐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巫歌를 통해 나타나는 價値觀 내지 巫歌 속에 투사되어 있는 信念體系(믿음)와 意識構造의 원형 때문이다.<sup>66)</sup> 巫神은 위력이 있을 뿐이지 도덕적인 감화력이나 슬기로운 지력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巫俗 信者는 복 빌기와 액막이를 할뿐이지 교훈을 받거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sup>67)</sup> 따라서 巫歌의 特徵들은 어떤 價値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價値觀은 어떤 信念體系와 意識構造가 投射된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창은 巫歌教育의 의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sup>68)</sup> 첫째, 巫歌는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교육을 통하여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巫歌는 말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련된 언어 능력과 미적 인식력을 기를

---

65) 무가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종교적 관점을 배제한다. 무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대적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무가를 문학적 현상으로 보고 그 속에 투영된 삶의 양식과 문화의식을 교육현장에서의 문학교육과 관련시켜 전개하고자 한다.

66) 金仁會(1978), “韓國敍事巫歌의 教育哲學的 意味(二)”, 『한국문화원논총』31집, 이화여자대학교. p.135.

67) 김기창(1993), “무가교육론”, 『교육한글』 6호, 한글학회. p.10.

68) 상계서. pp.15~16..

수 있다. 셋째, 巫歌는 민중적이며 민족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이의 교육을 통해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 한국인다운 삶의 여러 가지 양식을 배우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넷째, 巫歌는 구연되는 문학이기 때문에 이 구연성을 통하여 즐거움과 함께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즉 巫歌 교육은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며 언어능력과 미적 인식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자신의 價値觀을 심화시켜 줌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게 하며 동시에 즐거움과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巫歌가 文學이고 그 文學이 교육적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교육적 작용은 '인식에 대한 인식 행위'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생산된 텍스트는 일차적인 하나의 인식계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 문학 텍스트를 읽은 문학 경험은 일차적 인식계에 대하여 '의미 구성'을 해내는 이차적 인식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를 '인식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69)</sup>

人間 存在는 自然과 人工의 사물을 통하여 '아름다움'이란 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 곧 美的 經驗(aesthetic experience)에 필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미적 태도라고 한다. 문학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의 요소 또한 이 범주에 든다.<sup>70)</sup> 또한 인간은 정신적인 면, 곧 내면 세계의 자라남에 대해 예민하게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든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한다든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 내면 세계의 영토를 넓히거나 기쁨지게 할 때 기쁨을 누린다. 인간 자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sup>71)</sup>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文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고장생활과

69) 丘仁煥 外(1998), 「文學教授·學習 方法論」, 三知院. p.20.

70) 상계서. p.20.

71) 김수업(1980), 「국어교육의 원리」, 청하출판사. p.65.



더욱 밀접히 관련되고 지식이나 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탐구되고 발견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자체가 피교육자의 삶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산만하고 무관하게 단절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을 피하고, 지식을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보 습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sup>72)</sup>

그러한 의미에서 巫歌는 결국 인간의 삶과 관련시켜 이해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巫歌가 언어, 특히 살아있는 言語를 통하여 구연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言語 能力을 형성시켜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文學은 곧 언어 예술이며 언어는 人間과 世界를 觀念的, 分析的, 論理的으로 認識하고 그 인식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그것을 형상적, 직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어 경험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정 언어행위가 ‘미적 형상의 창조를 통한 체험의 공유’라는 지향성을 분명히 할 경우 그것은 바로 ‘문학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文學이란 ‘언어를 통한 형상적 인식, 또는 형상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상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곧 문학행위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기초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현재에 와서 口碑文學이 약화되고 文學의 중심으로 부각된 것은 새로운 記錄文學 양식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口碑文學은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수렴해 내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과연 진정한 삶의 한 과정을 이루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傳統時代와는 달리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공본풀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에도 왕성하게 구연되고 있으며 아울러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살아있음을 볼 때, 과거 한 때의 삶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巫歌를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앞에서 살핀 <이공본풀이>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72) 이상구(1998),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p.1.

73) 신동훈(1994),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p.153.

## 1. 原型心象의 측면

<이공본풀이>는 죽음의 사건이 가장 핵심에 놓인다.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꽃이 지니는 기능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꽃'은 꽃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생명현상을 식물과 관련시킨 수많은 식물 중에서 하나의 소재다. 그런데 꽃이 인간의 생사나 목숨, 그리고 생명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이공본풀이>에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꽃피우기 시합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는 꽃이 인간을 의미하며 꽃에 대한 경쟁은 바로 인간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sup>74)</sup> 인세 차지 경쟁 설화는 인간을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의 기초는 '경쟁' 그 자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물론 이 때의 경쟁은 본풀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상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思考는 인간존재의 탄생에 깊이 간여하여 나타나는 데, <삼승할망 본풀이>에 이러한 思考가 잘 나타나 있다. 아기의 잉태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하는데, 이 '삼승할망'은 꽃을 들고 다니며 포태를 준다. '삼승할망'이 産神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꽃은 이러한 기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産神으로 자리잡은 것은 '동해용왕따님아기'이지만, 여기에 도전하여 나타나는 것이 '명진국따님아기'이다. 이 둘 중 누가 産神의 기능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바로 꽃가꾸기의 시합이 존재한다. '명진국따님아기'가 '동해용왕따님아기'보다 꽃을 더 번성시키고 그 결과, 산신으로 자리잡는다는 것<sup>75)</sup>은 바로 꽃이 産神의 직능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 꽃이 바로 인간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思考의 반영일 것이다.<sup>76)</sup>

이 두 본풀이 즉,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 본풀이를 통해서 보면 꽃은 우선 생명의 탄생이나 잉태를 나타내는 원형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74) 현승환(1997),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13집, 백록어문학회. p.9.

75) 현용준(1980), 전게서. pp.108~116. 참조

76) 현승환(1990), "삼승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전승의식", 『心田 金洪植教授 華甲紀念論叢』, 제주문화사. pp.563~584 참조.

한편, 꽃은 생명의 탄생이나 잉태의 원형심상으로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공본풀이>나 <바리데기> 巫歌를 살펴보면 꽃은 부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장에서 <이공본풀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이공본풀이>와의 관련성은 생략하고 <바리데기>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바리데기>는 무당이 모시는 무조신의 내력담이다. ‘바리데기’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딸 여섯을 낳고 일곱 번째 태어나는 자식이 아들이기를 원했으나 또다시 딸은 낳는다. 이 일곱 번째의 딸이 바로 ‘바리데기’이다. ‘바리데기’의 부모는 일곱 번째의 딸을 버리고 그 죄로 병들어 죽게 된다. ‘바리데기’는 이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서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구하러 다니며 모진 고난을 겪는데, 그 과정에 꽃을 구해 와서 부모를 살려낸다. 바로 꽃이 생명을 살려내는 부활의 기능이 있음을 알겠다. <세경본풀이>에도 이와 동일한 원형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죽은 문도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꽃이다. 그녀는 꽃을 구해와서 죽은 남편을 다시 살려낸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생명부활의 기능이 바로 꽃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본풀이들은 생명은 외부로부터 ‘부여’된다는 사고이며,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결정한다는 思考를 드러내 준다.

이러한 思考는 우리 나라 神話의 전반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은 구지봉에 올라 집단적으로 노래하고 기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은 외부에서 온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三姓神話>에 三神人이 세 개의 구멍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생명의 탄생을 외부에서 온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물론 三神人과 결혼할 상대가 바다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도 이러한 思考와 同軌라고 볼 수 있다.

<獻花歌>를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견우 노옹이 수로부인에게 높은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다 드리겠다는 것에서 견우노옹은 생명부여의 직능을 수행하는 자, 즉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당이겠고,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꽃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신의 직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받아들이는 자, 수로부인은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당에게 잉태나 생명을 기원하는 곳의 의뢰자라고 볼 수 있으며, 신화적 입장에서 보면 신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77)</sup>

77)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현승환 교수는 <현화가>가 본풀이의 잔영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의 이러한 관점은 현교수의 견해에 힘입은 바 크다.

<兜率歌>에는 꽃이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三國遺事>의 月明師 兜率歌條<sup>78)</sup>에는 월명사가 꽃을 뿌리며 꽃에게 ‘은근하고 정중한 곧은 마음이 시키는 것이니 彌勒座主를 모시라’ 했더니, 곱고 깨끗한 동자가 나타난다. 이는 공중에 뿌린 꽃이 곧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생명현상에 대한 원형적 심상은 현대시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제시된 ‘진달래 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로 꽃과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관련시킨 표현이다. <산유화>에서의 ‘저만치’ 피어있는 꽃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꽃이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과 관련된 원형적 심상임을 알 수 있겠다.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는 40대의 圓熟美를 갖추기까지의 고통이 우주의 본질적인 면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춘수의 <꽃>에서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탐구를 시도하는 대상으로서의 꽃도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원형적 심상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꽃이 바로 인간의 존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를 노래할 때마다 차용되는 소재가 바로 꽃이라는 원형적 심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형적 사고는 허구적 사실이라는 소설에도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화적 사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이행된 시대에도 앞에서 살핀 꽃과 관련된 원형적 사고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장화의 출생 장면에서 꽃이 등장한다. 특히 이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고 때문에 꿈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득 한 선관이 하늘로 조츠 내려와 솟한 송이를 쥘 거날 부인이 바드러 홀 즘음에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솟치 변흐야 아름다운 선녀가 되야 부인의 품속으로 들거늘”<sup>79)</sup> 부인이 놀라 깨어났다. 이는 꽃이 인간으로 변화된 경우를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바로 꽃은 생명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심청전>을 비롯한 많은 고대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러한 꽃과 생명의 관계는 인간의 인식 변화와 함께 보다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즉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인간의 삶과 동일시하는 심상으로 이어진다.<sup>80)</sup> 이러한

78) 一然, 전계서, 感通 第七, 月明師 兜率歌條.

79) 장화홍련전(1961), 永和出版社. pp.1~2. ; 현승환, 전계서. p.25.에서 재인용

동·식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상상력은 현대문학에 이어져 나타난다. 김동리의 <무너도>는 현대인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연세계와 교통이 가능했던 전통사회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다.<sup>81)</sup> 원래 원시인들은 외계에 수많은 鬼神이 가득 차 있다는 우주관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병을 앓거나 죽게 되는 것은 악마의 魔性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청준은 <새와 나무>에서 환생의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작품 심층에 질게 드리우면서, 작품 제목 그대로 ‘새’와 ‘나무’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sup>82)</sup> 이 소설은 20여 일 간의 노독으로 지친 한 나그네가 작은 농가에 도달하여, 나무를 정성껏 돌보는 ‘주인’을 만나고 나그네의 눈에 그 주인 남자가 ‘나무’와 같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데서 시작된다. 이 소설은 인간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 불행하게 떠도는 자를 ‘새’에 비유하고 한 곳에 머물러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자를 ‘나무’에 비유하여 그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는 인간을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는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학동 나그네>에서의 ‘학’은 안주할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나그네’의 이미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는 人間과 自然을 동질시하는 데서 연유한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달빛을 받고 있는 ‘메밀꽃’이라든가, ‘당나귀’ 등은 주인공의 삶과 동질적 관계를 이루게 하는 神話的인 自然觀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허생원과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당나귀’는 허생원의 분신이자 그의 애육에 가득찬 본원적인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

80) N.프라이에 의하면 기독교의 변체설에서도 동물계와 식물계는 서로 동일시되고 있으며, 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도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종교적 동일시와 시적인 동일시는 의도에 있어서만 다를 뿐, 전자는 실제적이며 후자는 비유적인 것인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식물계가 인간계와 관련을 맺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원형으로 볼 수 있다.

N.프라이, 임철규 역(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pp.193~201 참조.

81) 이광풍(1985),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p.52.

82) 상계서. p.5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인간을 식물현상과 관련시켜 상상하는 원형적 사고가 본풀이뿐만 아니라 고대문학, 현대문학에까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형심상에 대한 지도는 한국문학의 전반에 나타나는 基本的 特性이나 原型 性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은 과거와의 단절된 상황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연속적인 입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2. 敍事文學的 측면

학생들에게 文學의 多樣性을 학습하게 하거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학 제재를 제공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또한 그만큼 다양한 문학에 대한 접근은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들을 시사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맛보고 받아들이도록 제시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김수업은 이런 교과서의 작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sup>83)</sup>

첫째는 훌륭한 모국어의 예술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둘째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작품 세계의 삶이 학생들의 삶에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세계와 드러내고 있는 삶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상징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라도 학생들의 삶에 들어와서 무언가 심각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작품의 윤리적인 문제다. 시대적 윤리보다는 인간의 보편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시야와 삶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작품 선정의 영역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보면 濟州巫歌는 마땅히 학교현장의 교육을 통하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상 본풀이는 운문으로 연행된다. 따라서 운문 서사시

---

83) 김수업(1980), 전계서. pp.179~182.

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문문학으로서 접근하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의 연계적인 차원에서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巫歌를 지도할 때 敍事性和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사적 요소의 측면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巫歌文學이 후대의 敍事文學들과의 관련하여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후대의 서사문학의 인물들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다르다면 왜 다르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人間에 대한 思考의 變化까지를 포함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공본풀이>는 한국서사문학의 서사적 典型性을 찾을 수 있음을 살폈다. 소재적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이야기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으로 구성되는데, 그 인물들을 우선하여 살펴보면, 삼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3대의 인물이 기본인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문학의 삼대라는 한 가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의 典型性으로 보아진다. 물론 이는 <이공본풀이>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단군 신화>나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는 그 중심적 인물을 누구로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이야기 전승자들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중심적 인물의 위치에 놓이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감은 바로 문학 향유자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단군 신화>의 이야기의 전개는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하늘나라의 환인의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그의 아들 환웅의 이야기로 연계되면서, 단군신화의 전승자들이 부각시켜 놓고자 하는 의도에 알맞은 인물인 단군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단군 신화>의 이야기 전개는 단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를 연계시켜 놓고 보면, 2대인 해모수라는 인물에 초점이 놓아지면 <해모수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고, 3대인 주몽에 초점이 모아지면 <동명왕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이야기 전승자들이 등장인물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며 동시에 意圖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이 한락둥이로 선택됨은 이 본풀이의 구연자나 청중들의 意圖가 관여한 결과인데, 소아사령곳에서 불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중들은 자식을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관심사인 자식 대에 관한 이야기에다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3대인 한락동이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자식의 입장에 부모를 당연히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야기의 소재가 아버지 찾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곳의 의뢰자는 여성인 어머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죽음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이다. 죽음의 경험을 하고 살아나는 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은 의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식이 죽은 어머니는 그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본풀이 속에서 자식을 죽이는 일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아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죽은 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곳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 특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체 文學이 가지는 構造는 성장과 찾음의 이야기, 원형과 빗뎀의 이야기,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 물음과 풀림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84)</sup> <이공본풀이>는 그 중 성장과 찾음의 이야기와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즉 한락동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인간적인 문학이요, 가족사와 연관해 보면 아버지를 상실한 자가 아버지를 찾는 문학이 될 것이다. 성장의 이야기란 중심 인물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성장의 이야기의 構造가 주인공의 신분이나 능력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데, 바로 <이공본풀이>는 한락동이의 능력의 변화와 아울러 신분(범인에서 신으로)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장의 이야기의 원형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반면, 찾음의 이야기란 중심인물이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본풀이>가 이러한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삶의 조건 속에서 삶의 조건을 상실한 인물들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려는 構造를 가진 작품을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

---

84) 김열규·신동욱(1995), 『문학(하)』, 동아출판사. p.112.



의 構造라고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한락둥이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이며, 아울러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공본풀이>는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巫歌의 目的性, 즉 機能과 관련하여 지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巫歌의 실제적 기능은 항상 청자에게 작용할 때만 성립한다. 문학이 독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창작 주체인 작가는 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학을 담화(discourse)라고 보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문학적 담화는 <작가⇌작품⇌독자>의 역동적 관계의 산물<sup>85)</sup>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의 청자는 실제적으로는 곳을 의뢰한 자이겠지만, 더 넓게 잡으면 곳관에 참여한 모든 청중들이다. 따라서 무당의 입을 통하여 구연되는 본풀이의 내용은 곳의 의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청중 모두가 곳의 의뢰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곳관 자체가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한 여타의 청중들은 의뢰자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누구나 다 자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적 상황(의뢰자가 처한 상황과 동등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신과 관련하여 사고하고 인간의 삶에 신을 간여시켜 인간의 문제를 신을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 여기에 바로 巫歌의 기능이 존재한다.

<이공본풀이>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공이라는 신이 행적을 통하여 청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죽음의 세계란 삶의 세계와 엄연하게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저편에 존재하는 세계이고 그 나름의 질서와 원칙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청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바로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이공본풀이>가 고대소설 <안락국전>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불교계 설화인 <안락국태자경>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최소한 巫歌가 서사문학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풀이를 통하여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敍事巫歌가 갖는 기능을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시켜야 할 것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공

---

85) 윤석산(1996), 『현대시학』, 새미. p.23.

본풀이>를 비롯한 敍事巫歌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기능을 무시하고 교육할 수 없다. 이는 巫歌가 기능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요소는 현대문학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건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은 청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자인데, 부각시키고자 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敍事巫歌의 주인공이 달라진다. 그리고 巫歌는 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巫歌의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학이 독자들에게 의해서 향유되는 것이라면 더욱더 巫歌의 기능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敍事的 요소의 연계성과 巫歌의 機能을 중시하여 무가지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3. 文化意識과 環境的 측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은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상통한다.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가르칠 내용이다. 교육내용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장 포괄적인 것은 知識, 技能, 價値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지식 영역(사실, 설명, 원리, 정의 등), 기능 및 과정 영역(읽기, 쓰기, 셈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의사결정하기, 의사 소통하기 등), 가치 영역( 선, 악, 참, 거짓, 아름다움, 추함 등)으로 구성된다.<sup>86)</sup>

그 중에서도 문학교육의 중심은 지식의 영역이나 기능 및 과정 영역이라기보다는 價値 영역에 놓여진다. 문학이 사물(대상)에 대한 解釋이고 意識의 표현이라면 그 解釋과 意識은 環境에 따른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문학은 문화의식의 소산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현상계에 한정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思惟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는 인식의 세계가 아니라 행위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 자유, 불사 등의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는 감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인식 능력으로서의 순수이성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리고 이성은 경험에서 시작하여 고귀한 이념으로까지 높이 이른다고 한다.<sup>87)</sup> 신화의 상상적인 표현은 결코 비유(allegory)

86) 김대현·김우석 (1998),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pp.89~90.

라고만 볼 수 없다. 상상력은 사고와 분리하기 어려우며 체험이 의식화되었을 때의 형식을 표상한다.

巫歌가 神을 불러 강림하게 하고, 그에게 人間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神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神이 존재하는 世界가 人間界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는 좀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세계 또한 성스러운 세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대의 '제천의식'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주된 내용과 정서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듯이<sup>88)</sup> 본풀이에서 찬양되는 존재나 세계는 최상위의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巫歌가 구연되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성스러운 권능에 감복하고 그 결과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세계의 원리는 곧바로 인간계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의 행위는 그의 능력이자 인간의 전범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점에서 巫歌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연원, 삶과 행동의 근원적 원리로서 문화의식, 자연(신)의 이미지,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고대인의 의식세계를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巫歌의 지도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은 첫째로, 神과 人間과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다. 신은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삶을 저만큼 떨어져서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면에 직접적으로 매우 가깝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巫歌에서 神이 마치 日常世界와 같은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지는 것은 그만큼 일반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神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며 삶에 대한 애착의 표현이다.

巫歌의 世界에서는 도달해야 할 理想世界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 세계란 조화와 질서를 갖춘 세계이지 만들어 내거나 실현하거나 어디엔가(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향해야 할, 또는 그리워해야 할 이상향은 오히려 現實 世界뿐이다.<sup>89)</sup>

87) 白琪洙(1990), 「美的 思索」, 서울대학교 출판부. p.25.

88) 손오규(1998),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14집, 백록어문학회, p.171.

그런데 그 현실세계가 秩序와 調和를 잃은 것이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 <이공본풀이>의 장자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巫歌가 神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人間의 삶을 노래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세계는 우리 문학의 소재가 되고 우리 문학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巫歌는 삶에서 느끼는 여러 모습과 다양한 삶을 담은 생활의 文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神과 人間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인물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 神話에서는 天上界와 地上界, 그리고 神의 世界와 人間의 世界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환웅'은 천상계인 환국에서 인간계인 태백산으로 하강했고 인간이 된 웅녀와 혼인을 했다. '해모수'도 天上에서 地上으로 왕래하면서 政事를 보았고 유희와 혼인을 했다. 이처럼 神과 人間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천상계의 존재는 그대로 인간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부모를 통해 탄생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신도 인간의 세계로 편입되면 인간계의 질서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思考를 반영한 것이며 人間世界가 神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sup>90)</sup>

그렇지만 인간계의 어려움을 타계할 영웅적 존재는 신의 세계로부터 온다는 사고가 소설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초기의 神話的 神과 人間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삶과 죽음의 관계를 통하여 현실적인 삶의 意味와 삶의 價値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은 인간을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인생을 표현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문화를 전수해 주며,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 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문학 작품은 전통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높이 인정받아 왔는데,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91)</sup> 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가치관이나 도덕성, 혹은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무가문학도 이러한 기능을

---

89) 金仁會, 전계서. p.151.

90) 서대석(1998),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 p. 34.

91) 이상구(1998), 전계서. p.1.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러한 가치관 및 도덕성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문학 교육의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나 가치는 바로 現實에 대한 認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공본풀이>가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현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연유한다.

셋째, 調和로운 世界를 추구하는 人間의 欲求에 관한 내용과 관련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調和는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그것은 양극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이 ‘소별왕’을 포용하는 것, ‘소별왕’의 행위는 ‘대별왕’이 허용 속에서 가능해진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調和를 추구하는 價値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巫는 저들 祖上(우주적 질서를 관장하는 신)과 人間(인간적 질서에 한정된 삶)과의 무한한 조화를 추구하고 그 조화 가운데서 삶의 창조적인 힘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요행이나 운명에 기대지 않는다. 늘 ‘지금 여기에서’(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현실중심, 현실인식, 현실인정, ) 모든 것과의 조화 속에서 삶을 충실히 해온 한국인의 모습을 巫에서 보게된다.

이를 굿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巫란 요컨대 인간과 신령과 무당이 함께 굿이라는 제의에서 만나 인간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인간(단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무당과 상의하여 굿을 하고, 거기서 무당이 중재하여 신령과 만남으로써 문제가 풀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 무당은 굿의 처방을 내고 그것을 벌인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당은 무의 온갖 신령을 법에 따라 순서대로 모셔 받들고 그들을 춤, 노래 및 제물로 기쁘게 해드리며, 그 단골에게 신령의 말(공수)을 전해준 다음 신령을 돌려보낸다. 굿은 바로 이들의 만남인 것이다. 굿을 놓 수 없으면 무당이 될 수 없고 굿은 무의 가장 기본되는 宗教儀禮가 된다.<sup>92)</sup>

이는 인간의 문제가 사람, 생활과 만물, 그리고 신령계를 포함하는 세상에서 늘상 다소간 상실되게 마련인 그 調和의 깨어짐에 있다. 깨어진 조화는 무의 굿을 통하여 다시

92) 조흥운(1990),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p.58.

93) 상계서. p.59.

회복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죽음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 죽음의 세계가 현실적인 삶의 세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한 데 있다. 삶은 죽음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인식은 보다 더 삶을 역동적으로 누리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認識이 自然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自然에 대한 思考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아름다움과 오묘함만으로도 찬탄과 찬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자연은 무한한 생명과 신비한 조화를 갖추고 있는 이상적 아름다움의 세계요,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 표준이다.

< 박경신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금성교과서(주), p.79. >

이런 까닭에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自然을 정복의 대상으로 認識하기보다는 영원한 안식처로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作品을 통하여 對象에 대한 美的 價値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본질적인 성질이란 실제적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이나 종교적·철학적 사상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을 지닌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人間的 能力 속에 있다고 본다.<sup>94)</sup> 作品 속의 世界란 꿈과 공상의 세계도 아닌, 두 세계의 矛盾을 종합한 세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體驗과 연관된 재현이며, 따라서 우주적인 진리의 양상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의 양식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형상화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새로운 양식인 미를 구현하게 된다. 이때에 활용되는 도덕적 가치 또한 미적 가치를 전제하는 조건일 뿐이며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가치로 존재하지는 못한다.

앞의 III장에서 <이공본풀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構造를 살펴 보면 작품의 밑바탕을 이루는 構造는 한락동이와 장자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음을

94) 전규태(1979), 「국문예학과 가치론」, 명진사. p.205.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공본풀이>라는 한편의 문학을 미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은 되나 그 자체가 이 작품을 통하여 청자(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공본풀이>는 어디까지나 장자와 한락동이의 갈등, 그 갈등의 확대와 해결, 인간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認識과 價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삶과 죽음의 상징적 조합이 美的 構造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濟州敍事巫歌의 기본 논리가 IV장에서 ‘본받음’의 논리임을 밝혔다. ‘본받음’의 논리는 신의 세계를 인간계의 전범으로 삼는 것인데, 이는 신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우리 민족의 美的 價値를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이공본풀이>의 청자들은 구연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저승을 여행한다. 그런데 그 안내는 象徴的 形式을 띠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다. 오직 상상적 힘에 의해서만 느껴지는 것이다. 즉 想像的 體驗만이 구연의 과정에 청자들에게 남아 있게 된다.

이 과정에 現實的 葛藤이나 不調和나 苦痛과는 완전한 거리감을 두게 되는 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美的 體驗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美란 다름 아닌 순수한 自然의 상태 속에서 自然의 理法을 자신이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의 삶은 이치대로 되어 간다는 것,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얻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간다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이 세상의 인간적 삶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승에서 영위하고 있는 삶은 저승으로 이행하기 전의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의 삶의 현상은 저승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본받음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공본풀이>가 구연되는 상황에서의 청자들은 상상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世上의 典範을 자신이 직접 體得하며 그러한 상황이 다시 우리들의 삶에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價値는 여러 가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그 일면에는 思想性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思想은 價値의 體系化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바로 이러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락동이의 행위가 비록 장자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갈등은 극단적으로 대립을 보이는 갈등이 아니라 상호간의 뿌리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삶이 바로 연결되고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천지 만물이 쉽 없이 연속되어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듯이,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여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평가되는 <金鰲新話>의 체계에도 나타나게 된다. 즉 현실계가 비현실계로 이어지고, 현실계의 존재의 결핍이나 불행함이 비현실계의 존재의 충족이나 행복으로 이어지고 다시 비현실계의 충족과 행복이 현실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sup>95)</sup>

따라서 사상의 체계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藝術的 價値를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공본풀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작품의 미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 4. 國文學史와 通時的 측면

무가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가문학이 지니고 있는 그 작품 자체의 문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문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떤 소재와 계기가 예술로 형상화되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무가를 건국신화가 퇴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의 전승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sup>96)</sup>이라면 무가가 그 후대의 문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대문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통시적 차원에서 무가의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에 내재하고 있는 서사적 원형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고전

---

95) 김창진(1983), "金鰲新話의 순환체계연구", 『국제어문』 4집, 국제대학교. pp. 5~35. 참조. 김창진은 이러한 체계를 순환체계로 명명하였다. 한편, 설성경은 '金鰲新話'는 순환의 체계에 다창작집단의 정치적이념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정한 작품의 체계에 정치적 가치를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성경(1993),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pp.19~90. 참조.

96) 조동일(1982),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p.54.



문학을 현대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과거의 문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문학사와 관련한 통시적 측면을 지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으로 구전되는 문학은 항상 고정되어 전승될 수가 없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전승자에 따라 구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전되는 내용의 모든 부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쉽지 않은 기본적인 골격인 전승축과 구연자에 따라 쉽게 변화되는 부분은 개성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97)</sup> 이 개성축은 구연의 시간과 장소, 청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문학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승축을 유지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변화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공본풀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는 <안락국태자경>이나 <안락국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98)</sup>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무가와 여타의 고전문학과의 계열성을 관련한 무가지도의 필요성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은 현실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그 현실의 세계에 고난이 닥칠 때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상상력의 소산으로서 나타난 것이 他界이고 神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他界나 神이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탈피를 소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삶에 닥친 고난을 이겨보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일 뿐이다. <이공본풀이>와 관련하여 볼 때 죽음관장신을 설정하고 저승을 설정하는 것 모두가 현실의 삶을 중시여긴 결과이다. 죽음이 당대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노동이 고난으로 여긴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노동요가 탄생하고 그 노동요의 근간은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중시의 결과로 나타난 타계나 신의 설정은 본풀이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인간세계에 신이 내려와 다스려주기를 소망한 결과 <檀

---

97) 홍태한(1997), 전계서. p.83. 참조.

98) 다만 어느 작품이 먼저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의문만 해결된다면 이들의 상호 관계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무가와 설화, 그리고 소설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君神話>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 국가건설을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소망한 결과 <龜旨歌>를 탄생시켰으며 제주민의 고통과 고난을 덜어줄 세계를 소망한 결과 ‘이여도’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것들은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향을 설정하여 추구한 많은 문학작품들이 무가의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사고가 변하면서 신의 자리를 대신 잡은 인물을 영웅으로 설정했다면 영웅들도 본풀이의 신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인물 유형이 <동명왕 신화>의 인물유형과 관련을 맺는 것은 신화가 인간 공동의 심리적이고 정신적 활동에 있어 종족과 민족을 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풀이의 청자들이 신이 세계를 설정하여 그 세계를 소원한다고 하면 <홍길동전>도 영원한 낙원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보편심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99)</sup>

한락동이 ‘물’을 건너 상실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이별이 없는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물 건넌은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서도 많이 차용되고 있다. <선녀와 나무꾼>의 물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장소이며 매개체이다.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의 대동강은 이별의 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님이 떠나지 않은 이쪽 서경의 세계는 이별이 없는 세계이며 대동강을 건너 저쪽의 세계는 다른 여자와 어우러진 이별이 존재하는 세계다. 정지상의 <送人>에 나타난 대동강도 이별의 장소로 차용된다. 현대소설에서는 이별의 장소라기보다는 한층더 발전한 변화의 계기로 자리잡고 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물레방앗간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장소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 건넌의 과정을 통해 동이와 허생원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하근찬의 <수난이대>의 외나무다리 설정도 현대적 사고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물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만도와 진수의 화합을 매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변화도 결국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달리 파악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풀이에 나타난 물에 대한 사고가 현대문학까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가지도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정

---

99) 최선욱(1979), “홍길동전의 신화비평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p.227.

했다. 첫째, 원형심상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이공본풀이>의 핵심적 요소인 꽃의 요소에 주목하고, 꽃이 생명의 탄생이나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려는 원형심상으로 자리잡는데 이는 한국문학에 두루 나타나는 요소다. 따라서 서사무가의 지도방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사문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서사적 원형과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가의 지도 방향을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의식과 환경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통하여 현실적인 삶의 意味와 삶의 價値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調和로운 世界를 추구하는 人間의 欲求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지도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作品을 통하여 對象에 대한 美的 價値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가를 통시적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은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 VI. 結 論

필자는 지금까지 <이공본풀이>에 나타나 있는 서사성과 의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巫歌의 指導方向을 설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름대로 巫歌 指導方向을 제시했다. 이는 곧 현장에서 巫歌가 교육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주 敍事巫歌인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본 것이다. 필자는 巫歌教育의 소재는 생명을 지니고 구연되고 있는 濟州敍事巫歌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공본풀이>의 문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敍事巫歌 指導方向을 原型心象의 측면, 敍事文學의 측면, 文化意識과 環境의 측면, 國文學史와 通時的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의 巫歌教育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문학교과의 18종 중 巫歌를 제시한 교과서는 5종에 불과하며, 그 5종에 제시된 巫歌는 <바리데기>(바리공주)와 <성조풀이>(성조풀이)로 매우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이것은 학교현장의 巫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목표도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2. <이공본풀이>의 文學的 位相을 살폈다. <이공본풀이>는 이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흔대 본>, <고산옹 본>, <안사인 본>을 택하여 이들의 특징들을 살폈다. 그 결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마지막 본풀이의 내용과 무관한 듯하게 보이는 부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구연자의 구연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본풀이>의 구연자는 청자를 신으로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청중들을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 배려가 작품의 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었다.

事件과 動機들을 연결하여 다시 본풀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풀이 구연동기를 構造的으로 드러내 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이별의 과정이 수반되고 있는데 이는 <동명왕 신화>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은 3대가 등장하는 데 그 중 어느 인물을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본풀이의 구연의도와 청자들의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은 '물'을 중심으로 하여 現實과 他界가 구분되는 데, 他界는 저승의 世界이며, 이는 他界

를 典範으로 삼으려는 意圖가 깔려 있다.

<이공본풀이>의 핵심적 요소는 죽음에 관한 사건이다. 따라서 한락동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으며 인물들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構造를 통하여 이공본풀이의 핵심요소인 죽음에 관한 내용은 청자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주고 삶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었다.

3.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文學意識을 살펴보았다. <이공본풀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본받음’의 논리다. 본받음은 의식의 문제이며 가치의 문제다. 본받음은 주체보다 대상을 강조한다.

‘이공’이 죽음관장신으로 좌정하는 이유들을 살폈다. 이를 통해서 평범한 인물인 한락동이가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락동이가 신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죽음을 體驗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 죽음을 克服하는 能力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굿의 의뢰자나 동참자들의 공유하는 의식이다.

타계설정을 통한 현실 重視의 사고를 살폈다. 타계를 설정한 것은 신의 세계를 전범으로 삼으려는 의도인데 이는 인간의 세계에 질서화와 조직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타계보다는 현실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사고에서 연유한다.

불도맞이에서 생명부여신인 <할망본풀이>와 죽음관장신인 <이공본풀이>가 동시에 불려지는 이유를 살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다른 두 개의 세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본풀이가 현실의 세계에 존재기반을 둔 인간들을 위하여 구연하기 때문이며, 현실의 삶을 누리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克服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자들의 삶과 죽음 사이에 망설임을 없애려는 것이다.

4. 巫歌의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향을 <이공본풀이>와 관련지어 살폈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측면과 관련시켜 지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는 原型心象의 측면에서 지도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공본풀이>에서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생명과 관련된 꽃인데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원형심상은 고대문학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둘째는 敍事文學의 측면에서 지도의 방향을 살폈다. 그 결과 서사적 요소들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의 연계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는 구연자나 청중들의 의도가 반영되는 데 이는 <해모수 신화>나 <동명왕 신화>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巫歌의 目的性, 機能과 관련하여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본풀이는 현실 저편에 존재하는 세계가 그 나뭇의 질서와 원칙을 지니는 곳이라는 것을 청자들에게 認識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文化意識과 環境的 측면에서 지도방향을 설정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통한 현실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 대상에 대한 미적 가치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의 방향을 설정했다.

넷째는 國文學史와 通時的 측면에서 지도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무가와 고전문학, 더 나아가서는 현대문학과 연계성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1. 資料

-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현용준, 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苑.
- 권영민(1996), 『문학 (상, 하)』, (주)지학사.
- 김대행 · 김동환(1996), 『문학 (상, 하)』, (주)교학사.
- 김봉군 · 최혜실(1996), 『문학(상, 하)』, 지학사.
- 김열규 · 신동욱(1995),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
- 김용직 · 박민수(1995), 『문학 (상, 하)』, 대일도서.
- 김윤식 외(1995), 『문학 (상, 하)』, 한샘출판(주).
- 김태준 외(1995), 『문학 (상, 하)』, (주)민문고.
- 남미영 외(1995), 『문학 (상, 하)』, 동아서적(주).
- 박갑수 외(1996), 『문학 (상, 하)』, (주)지학사.
- 박경신 외(1995), 『문학 (상, 하)』, 금성교과서(주).
- 성기조(1996), 『문학 (상, 하)』, 학문사.
- 오세영 · 서대석(1995), 『문학(상, 하)』, (주)천재교육.
- 우한용 외(1995),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
- 윤병로 외(1996), 『문학 (상, 하)』, (주)노벨문화사.
- 이문규 · 권오만(1995), 『문학 (상, 하)』, 선영사.
- 최동호 외(1995), 『문학 (상, 하)』, 대한교과서.
- 한계전 외(1996), 『문학 (상, 하)』, 대한교과서.

### 2. 單行本

- 교육부(1995),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구인환 외(1998), 『文學 教授 · 學習 方法論』, 삼지원.
- 길희성 외(1997), 『환경과 종교』, 민음사.
- 김경탁 역(1983), 『老子』, 養賢閣.

- 김대현·김우석(1998),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 김수업(1980), 「국어교육의 원리」, 청하출판사.
- 김의숙(1993),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 집문당.
- 문학교육연구회(1987), 「삶을 위한 문학교육」, 연구사.
- 백기수(1990), 「美의 思索」,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대석(1994), 「韓國巫歌研究」, 집문당.
- 손오규(1994),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 송성대(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 제주문화.
- 에른스트 카시러, 정태진 역(1981), 「人間과 文化」, 탐구당.
- 왕 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 윤석산(1996), 「현대시학」, 새미.
- 이광풍(1985),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 집문당.
- 일연, 이민수 역(1983),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 장덕순 외(1984),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전규태(1979), 「국문예학과 가치론」, 명진사.
- 조동일(1980),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 \_\_\_\_\_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82),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 조홍윤(1990),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 한상갑 역(1982), 「論語」, 삼성출판사.
- 한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H. 마르쿠제, 최현·이영근 역(1992), 「미학과 문화」, 범우사.
- H. 프랑크포르트 외, 이성기 역(1996), 「고대 인간의 지적 모험」, 태원사.
- M. 폰터스, 이보임 역(1984), 「인식론」, 동녘.
- N. 프라이, 임철규 역(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 3. 論文

#### <學位論文>

- 김영석(1984), “한국시의 생성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영일(1985), “한국무속서사시의 서사구조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준기(1984), “서사무가 당금에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현선(1991), “경기도 도당곳 무가의 현지 조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박경신(1991),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대석(1968), “서사무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유달선(1994),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윤찬주(1991),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상구(1998),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현숙(1984), “<바리공주>무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홍태한(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一般論文>

- 강정식(1988),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우리문학연구』7. 우리어문학회.
- 김기창(1993), “무가교육론”, 『교육한글』6호. 한글학회.
- 김인회(1978), “한국서사무가의 교육철학적 의미(2)”, 『한국문화원논총』31집. 이화여자대학교.
- 김창진(1984), “관념적 시공의 존재 양상 및 성격고찰(1)”, 『미원우인섭선생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 \_\_\_\_\_ (1983), “금오신화의 순환체계연구”, 『국제어문』4집, 국제대학교.
- 박경신(1986), “제주도 무속 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96호. 국어국문학회.
- 서대석(1979), “관소리와 서사무가의 대비연구”, 『한국문화원연구논총』34, 이화여자대학교문화연구원.
- \_\_\_\_\_ (1994), “한국무가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 \_\_\_\_\_ (1998),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
- 손오규(1998),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14집, 백록어문학회.
- 송효섭(1984), “이조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23집. 한국언어문학회.
- 신동훈(1994),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1집, 한국구비문학회.
- 안성수(1995), “인연찾기의 담론구조와 액자미학”, 『국문학보』13집, 제주대학교국문과.
- 이봉린(1981), “삼국유사의 상징성 연구”, 『학술연구보고서』6,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부영(1989), “제주무속의 몇 가지 특징과 분석심리학적 시고”,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

화」, 제주도연구회.

이수자(1993), “무속신화이공본풀이의 신화적의미와 문화사적위상”,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이태욱(1989), “제주도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제주도연구회.

장주근(1973), “서사무가의 시원과 문속문예사상의 위치”, 『문화인류학』5집.

\_\_\_\_\_ (1994), “제주도 서사무가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11집, 제주도연구회.

좌혜경(1998),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1”, 백록어문학회 학술대회발표요지.

최민홍(1979), “한의 철학의 인식론”, 『한국 철학연구』9집. 해동철학회.

최선욱(1979), “홍길동전의 신화비평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허남춘(1995), “중세시가의 전개와 미의식”, 『국문학보』13집, 제주대학교 국문과.

허춘(1992), “제주도 무속신화의 문화영웅고”,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현승환(1997),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13집, 백록어문학회.

<Abstract>

**The Study on Teaching Avenue of the Shamanic Epic  
in Litera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IGONG-BONPURI>**

**Hyun Won-Pil**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effective method of The Shamanic Epic in literature.

To achieve the above goal,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some current problems by analyzing the recent tendency in teaching Shamanic Epic. Second, on the premise that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by studying on the concrete work, <IGONG-BONPURI> of Cheju Island Epic is chosen. The reason of choosing this work is that it gets a complete structure of Shamanic Epic, the archetype of Korean Shamanic Epic comparatively, and also it has relation to the latter Epic Literatures. And its teaching method is set up based on studying deeply Shamanic Epic, its structures and the consciousness of this literary work. In <IGONG-BONPURI>, the process of solving the narrator's desire is well exposed considering the narrator's intention of narration and the desire of audience.

When putting all accidents and motives of <IGONG-BONPURI> together, this literary work is shown the narrator's motives structurally, which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narration and the desire of the audience. The main factor of <IGONG-BONPURI> is a death. This is to solve the audience's suspicion and to make us look the world of life optimistically.

The basic logic of <IGONG-BONPURI> is just that of "the following another's virtue". IGONG was recognized his abilities as a god. this is merely because IGONG experienced a death and had the power of getting over the death. This is the consciousness that the requests and the participants in the activities of "Gut" hold together. <IGONG-BONPURI> set up another world in the work. this is an intention for making human world be in good order and organization. and this is thought that put the important meaning on the world of reality than on the world of god. <IGON-BONPURI> is narrated for the human of the world of reality and its purpose is to remove human's fear about death. So life and death is narrated at the same time to get rid of the hesitation between life and death.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the Shamanic Epic in the secondary school relating to four aspects drawn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archetype image, the way of teaching was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image of regarding human in the same light with nature.

Second, in the aspect of epic literature, the teaching about epic archetype should be acted, and the way of teaching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hamanic Epic. This is why the Shamanic Epic can't be existed without its function.

Third, The Shamanic Epic should be taught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culture and environment. this is why <IGONG-BONPURY> is reflex of

the consciousness of our world and environment. so to speak, it should be taught in connection with the human-centered thought, the meaning of realistic life, the value of life, the human desire of pursuing harmonious world, and an esthetic value in various things.

Fourth, The Shamanic Epic should be taught in relation to the diachronic aspect and the history of literature. Variation in legendary literature is apt to appear in the process of handing down,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manic Epic and the Epic literature can be found. this is why the subject matters of the Shamanic Epic are different even as time passes, but they can be related to the thoughts which appear in the Shamanic Epic.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concrete analysis of works, the Shamanic Epic should be taugh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of Korean Epic Literatur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